

기독교 병역거부 워크숍

평화와 생명의 길 신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일시 : 2013년 10월 26일 토 오후 2시 ~ 6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애홀

주관 : 갈등전환센터, 개척자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KAC(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KOPI(한국평화교육훈련원)

후원 : NCKK 인권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초대합니다

평화와 생명의 기

신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일시 : 2013년 10월 26일(토) 오후 2시 ~ 6시
▶ 장소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조애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생명, 정의, 평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에 신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극도로 예민한 문제이지만, 신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적, 성서적 차원에서 조명해 보며 외국사례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시간	내용 / 강사
1부	2:10~2:40	- 전쟁과 평화에 대한 초기기독교의 이해 : 이상규(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강연	2:40~3:40	- WCC의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및 독일기독교인들의 병역거부 : Fernando Enns(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신학과 교수)
휴식	3:40~4:00	- Tea Time
2부	4:00~6:00	- 패널토의
토론		① 병역거부와 인권, 양심의 자유 : 최하늬(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캠페이너) ② 병역거부와 한국교회 : 강인철(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③ 병역거부와 나 : (병역거부 당사자) ④ 병역거부 외국사례 : Renke Brahms(독일 복음주의 교회 주교)

▶질의응답 및 공개 토론

- 주관 : 갈등전환센터, 개척자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KAC(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KOPI(한국평화교육훈련원)
- 후원 : NCKK 인권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문의 :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_ 033-242-9615 (kac@kac.or.kr)
전쟁없는세상 _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 후원계좌 : 스탠다드 차타드 _ 425 - 20 - 403665 (예금주: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워크숍 프로그램>

	사회	김경중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총무)
2:00	인사말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2:10	1부 강연	전쟁과 평화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이해 이상규 /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2:40		WCC의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및 독일기독교인들의 병역거부 Fernando Enns / 독일, 함브르크대학교 신학과 교수
3:40	휴식시간	
4:00	2부 토론	병역거부와 인권, 양심의 자유 최하늬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캠페이너 병역거부와 한국교회 강인철 /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병역거부와 나 홍원석 / 병역거부자, 2011년 8월 병역거부 선언 병역거부 외국사례 Derek Brett /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FOR)
5:00	질의응답 및 공개토론	

<자료집 순서>

강연1	초기 기독교의 평화주의 전통 / 이상규	1
강연2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Fernando Enns	14
토론1	병역거부와 인권, 양심의 자유 -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한 요구 / 최하늬	35
토론2	병역거부와 한국교회 / 강인철	40
토론3	병역거부와 나 / 홍원석	46

초기 기독교의 평화주의 전통

이상규(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공인(313)을 받고, 국교(380)가 되기 이전의 기독교를 ‘초기 기독교’ 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공인과 국교회(國敎化) 이후 곧 4세기 이후의 기독교를 ‘콘스탄틴적 기독교’ (Constantinian Christianity)라고 부른다. 4세기 이전과 이후의 기독교는 많은 상이점을 보여주었는데, 4세기 이후는 이전의 기독교회가 지녔던 2가지 가치를 상실했다. 첫째는 소유 혹은 물질(財物)에 대한 자유함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평화주의적 전통이었다.

초기 교부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부(富)에 내제한 영적 위험성에 대하여 부단히 경고했다. 그래서 초기 4세기동안에 기독교회 안에는 돈과 제물,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한 이들의 의무에 대한 문헌이 상당했고, 초기 기독교 저자들 가운데 이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대체적으로 교부들은 물질적 소유가 가져올 영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반대하고 검소한 삶을 권고하였다.¹⁾ 그러나 4세기를 거쳐 가면서 이런 가치들은 상실되었고, 소유와 부의 추구가 함의하는 영적 의미에 대해 무관심했다.

초기 기독교가 중시했으나 4세기 이후 상실된 다른 한 가지는 평화주의 전통이었다. 초기 기독교는 살인이나 살상을 반대할 뿐 아니라, 군복무 혹은 병역(兵役)을 거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적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이런 평화주의적 전통은 정당전쟁론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교회의 제도화와 제국의 종교로의 변화에서 결과한 당연한 발전이었다. 이 글에서는 4세기 이전과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인 평화주의 전통에 주목하되, 초기 교부들은 평화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고, 초기 기독교회는 어떤 이유에서 군복무를 반대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 기독교에서의 군복무와 평화주의 전통²⁾

일반적으로 4세기 이전의 기독교 공동체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했다는 의미는 군복무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했다는 의미인데, 이 점은 하르낙(A. Harnack), 옥스퍼드대학의 캐독스(C. J. Cadoux),³⁾ 레이든대학의 헤링(G. J. Heering)⁴⁾, 메노

1) Church History (Vol. VI. No.3), 참고, 이상규,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통합연구』4권 2호(1991. 6), 109-135.

2) 로마제국에서의 군복무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1900년 이래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John Helgeland,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AD 173-337," *Church History*, vol. 43, no. 2 [1974]. 149ff.). 그 대표적인 작품이 Adolf Harnack의 *Militia Christi* (Tübingen, 1905)였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학자들 외에도 특히 역사적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es) 학자들에 의해 이 문제가 깊이 숙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전, 반전 혹은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주의(pacifism)이란 단어가 1904년에 출판된 옥스퍼드 사전(The complete Oxford Dictionary)에 나오지 않고 있다. 즉 1900년 이전까지 이 문제가 관심을 끌지 못했음을 반영해 준다. pacifism이라는 단어는 1982년 옥스퍼드 사전에 실리게 된다. 제1차 대전을 경험한 후 평화에 대한 주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 UN의 창설, WCC의 창립 등 국제적인 유대를 통한 평화추구의 노력이 일어났고, 평화는 학제간 연구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역사적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es) 신학자들의 기여가 컸다.

3) *The Early Christian Attitude to War* (London: Headly Brothers, 1919); *The Early Church and the World*

나이트 학자들인 홀쉬(John Horsch),⁵⁾ 헬스버그(Guy F. Hershberger)⁶⁾ 등의 연구를 통해 분명히 제시되었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는 폭력이나 전쟁을 비도덕적이고 비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한다.

초기 기독교회가 군복무나 살상, 폭력, 전쟁을 반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신약성경 특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따르려고 했기 때문이다.⁷⁾ 예수님은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고 했고(마5:39), 다른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다(막9:4). 이런 가르침을 제자도로 인식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교적 헬라 로마적 질서로부터 심리적 이면을 떠났던 이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런 점들을 보여 주는 흔적이 초기 교부들의 글 속에 나타나 있다. 폴리갑(155년경)은 빌립보인들에게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씀(벧전2:23)에 순복하라고 했고, 180년경 변증가 아테나고라스는 동일한 취지의 기록을 남겼다. 분명한 증거는 174년 테르툴리아누스의 그리스도인들은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보다 강력한 권면 속에 나타나 있다. 군인이 신자가 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군복무를 그만두든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초기 기독교가 군 복무를 반대하고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행했다는 점은 2세기 후반의 이교도 켈수스(Celsus)의 기독교 비판 속에도 암시되어 있다. 켈수스는 기독교도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군복무 반대와 비전(非戰) 권고는 결국 제국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 258년에 순교한 키푸리아누스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범죄로 간주되지만 국가리는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은 용기로 간주 된다” 며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나 전쟁을 비판했는데, 이런 점들은 초기 기독교회의 평화주의적 입장을 반영한다. 4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독교인이 군복무를 거부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막시밀리안(Maximilian)이라는 21살의 누미디아 출신의 청년은 군복무를 거절한 이유로 295년 3월 12일 사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초기 기독교의 군복무 반대와 평화주의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

3세기의 한 교회법에 의하면 목사로서 동시에 직업군인이나 이발사, 수술의사, 대장장이의 일을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앞의 3직업은 피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대장장이는 그들의 도구를 만드는 자이기 때문이었다.⁸⁾ 이것은 정착목회 이전의 자급 목회 시대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당시 교회의 평화주의적 이상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2. 초기 기독교는 왜 군복무를 반대했는가?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나 군복무에 가담할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BC 27~14AD)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161~180)까지 소위 군사적 우위를 통해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누리고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지중해 세계가 비교적 안정을 누렸다. 이러한 평화의 기운은 스코틀랜드·북아프리카·페르시아까지 확산되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방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일반인들은 그 전쟁 자체를 모르고

(Edinburgh: T&T Clark, 1925).

4) *The Fall of Christianity, A Study of Christianity, The State and War* (London: Allen & Unwin, 1930).

5) *Die biblische Lehre von der Wehrlosigkeit* (Scottsdale: Herald Press, 1920), *The Principle of Nonresistance as Held by Mennonite Church* (Scottsdale: Herald Press, 1951).

6) *War, Peace and Nonresistance* (Scottsdale: Herald Press, 1953); *The Way of the Cross in human Relations* (Scottsdale: Herald Press, 1958).

7) J. F. Kelly(방성규역),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이레서원, 2002), 267.

8) 박근원, “자급목회에 관한 시론,” 「신학연구」15집(1974), 220,

살았을 정도였다.⁹⁾ 따라서 군복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문제시 되지 못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 징집을 할 경우에도 그것은 로마제국의 국경이나 변방지역에서 행해졌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복무나 전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한 현안이 되지 못했다. 징집은 거의 요구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이나 노예, 그리고 해방된 노예(freedman)은 징집에서 제외되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다수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군복무에 대한 논의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¹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군복무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루이스 스유프트(Louis Swift)의 말처럼, “첫 2세기 동안에는 군복무 문제와 씨름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었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정부기관을 유지하거나 명령할 책임이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크게 말해서 법을 지키고 그저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다.”¹¹⁾

그러다가 2세기 말에 와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70년경부터 군 복무중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초기 교부들의 글 가운데서 군복무나 전쟁에 대한 견해가 간헐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복무 중인 그리스도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군복무를 반대하는 교부들의 글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가 교부들의 논의의 주된 논쟁점은 되지 못했다.

173년 이전에는 군 복무중인 그리스도인(christian soldier)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설사 있었다 해도 그 수는 결코 많지 않았을 것이다.¹²⁾ 그러나 점차 그리스도인이 로마제국의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게 된다. 다수는 군복무 중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의 군 복무가 반드시 부정되지는 않았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인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군인들의 생활방식이 의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세례요한이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誣訴)하지 말고 받는 요(料)를 족한 줄로 알라”(눅3:14)고 책망하는 말씀 속에 암시되듯이 군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군인들은 이교의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게 되거나 군인의 서약을 하는 등 우상숭배적 관행(idolatrous practices)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제징병제가 아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군복무는 권장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군대 안에 신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복무 중에 기독교신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in whatever state each was called, there let him remain with God, 고전7:24)고 했는데, 기독교인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도록 허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시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기에 있어서 군인들은 경찰로서의 기능을 감당했고, 변방의 군인들과는 달리 인명 살상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170년대를 거쳐 가면서 군 복무중인 그리스도인 수가 증가해 가기 시작하지만 그 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미미한 정도였다는 주장과 상당한 정도의 그

9) H. C. Boren, *The Ancient World: An Historical Perspective* (NJ: Prentice-Hall, 1976), 339.

10) George Kertesz, *Christians, War and Peace* (Melbourne: Broughton Press, 1989), 8.

11) Louis J. Swift, *The Early Fathers on War and Military Service* (Wilmington, 1983), 26.

12) Kertesz, 8.

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주장 등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의 수가 증가해 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이민족의 침입에 따른 강제징집, 3세기 중엽에 와서 크게 개선된 군 복무 환경, 그리고 이교적 행사에의 불참 허용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가 군복무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를 반대한 것은 군복무는 황제숭배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르낙은 이 외에도 3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더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는 전쟁과 피 흘림을 반대하기 때문이며, 둘째, 군 장교는 사형을 명하고, 병사는 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셋째, 군인들의 절대적 맹세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르낙은 이 외에도 이교문화(pagan cults)에 가담하게 되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지적하기도 했다.¹³⁾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가 군복무를 반대한 것이 우상숭배의 가능성 때문인가 아니면 평화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양자를 다 포함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캄펜하우젠(Hans Campenhausen)¹⁴⁾, 존 헬게랜드(John Helgeland)¹⁵⁾ 등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를 반대한 것은 단지 우상숭배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르낙, 베인톤, 그리고 평화교회 신학자들은 우상숭배의 가능성 뿐 만이 아니라 피 흘림과 살상, 그리고 폭력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전쟁론을 지지해 온 이들, 특히 천주교 신학자들은 우상숭배의 동기를 강조하고, 평화주의 사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역사적 평화교회 전통의 신학자들은 우상숭배와 함께 평화주의적 전통을 강조하였다.

3. 초기 교부들의 군복무 반대와 평화주의적 견해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교부들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저들의 작품 속에서 전쟁 일반에 대해 단편적인 언급이나 논평이 있을 뿐이다. 단지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그리고 히폴리투스만이 이 점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평화주의적인 역사가들은 초기 기독교 교부가 징병전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염두에 조차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170년을 경과해 가면서 군 복무중인 신자가 생겨나고 그 수가 증가되어가는 변화된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군 복무와 전쟁에의 참여에 대해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발전해 간다. 그래서 2세기 말부터 교부들은 군 복무와 전쟁,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있었던 인물이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활동했던 터툴리안, 그리고 3세기 중반의 오리겐이었다.

터툴리안(Tertullianus, c.160-c.225)

터툴리안은 2세기 대표적인 라틴교부로서 197년경부터 224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집필활동을 했는데, 희랍어로도 글을 썼으나 현재는 라틴어로 쓴 31편의 글이 현존하고 있다. 그의 저작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군 복무와 전쟁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언급하고 있는 책으로는 「변증서」(*Apologeticum*), 「영혼의 증거에 대하여」(*De testimonio animae*), 「스카폴라에게」(*Ad Scapulam*), 「유대인 반박론」

13) Harnack, *Militia Christi* (Tubingen, 1905).

14) *Christians and Military Service in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1968), 7장 참고,

15)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AD 173-337," *Church History*, vol. 43, no. 2 (1974), 149-163;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from Marcus Aurelius to Constantine,"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I 23,1, 724-834.

(*Adversus Iudaeos*), 「마르키온 반박서」(*Adversus Marcionem libri*), 「육체의 부활」(*De resurrectione carnis*), 「우상숭배론」(*De Idololatria*), 「화관론」(*De corona militis*), 「외투에 관하여」(*De pallio*), 「박해시의 도주에 대하여」(*De fuga in persecutione*), 「인내론」(*De patientia*) 등 11권에 달한다.

그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변증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군복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리스도교의 비폭력적 특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의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유의하여 신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즉 터툴리안은 초기에는 전쟁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한 군대, 성실한 원로원, 세계의 평화, 그리고 제국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¹⁶⁾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에 충성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포함한 제국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했다.¹⁷⁾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전을 제외한 제국의 어디든 참여하였다. 이 점에 대해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를 포함한 공중생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우리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 곧 도시와 섬들, 성과 마을들, 시장과 군부대에도 참여하고 있다” 고 했다.¹⁸⁾ 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제국을 수호하는 군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시민이며, 제국에 저항하는 어떤 비난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죽이기보다는 기꺼이 자신이 죽고자 하는 이들(rather be killed than kill)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기에 기록한 「화관론」(*De corona militis*)과 「우상숭배론」(*De Idololatria*)에서는 이전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군복무를 반대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몬타누스 이단으로 전향한 이후에 쓴 글인데, 이 글에서 군 복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위로 말하고 있다. 특히 「화관론」에서 이 점을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다. 「화관론」은 초기 교부들의 문헌 중 군복무 문제만을 취급한 유일한 문헌인데, 황제가 즉위하면서 병사들에게 하사한 선물을 받을 때 월계관(花冠) 쓰기를 거절한 병사의 순교를 보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책을 쓰게 했던 동기가 되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터툴리안은 월계관을 쓰는 것을 이교적인 습관으로서 우상숭배의 하나로 보았는데, 이를 거절한 군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황제 폐하의 하사금이 병사들의 막사에서 분배되고 있을 때 월계관을 쓴 병사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금방 눈에 띄는 한 고상한 병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다른 동료병사들 보다도 더 굳건한, 오히려 하나님의 병사라고 불러야 좋을 이 병사의 머리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고 그 대신 월계관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유를 퍼붓는가 하면 가까이 다가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웅성대는 소리는 군단 지휘관에게 까지 들렸고, 곧 그 병사는 대열로부터 불려나갔다. 그러자 즉각 지휘관은 “어찌하여 그대의 복장은 그렇게 다른가?”라고 병사에게 물었다. 그 병사는 다른 병사들처럼 월계관을 쓸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관이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자 그 병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¹⁹⁾

이 책 제1부에서(1.6-7.2) 터툴리안은 군대의 화관이 왜 우상숭배인가를 논증하고, 제2부에서(7.3-11)는 병사의 화관이 이교의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논증했다. 그리고는 군복무를 복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다.²⁰⁾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군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징집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군복무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²¹⁾ 터툴리안이 활동했던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군 복무를 받아들

16) *Apology*, 30. 4

17) *Apology*, 42. 3.

18) Hamack, *Militia Christi*, 75. *Apologeticum*, 37.4.

19) 알버트 마린 편,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성광문화사, 1982), 45-6.

20) *Apology*, 11.4

였다는 증거와 거부했다는 증거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터툴리안 자신도 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에서 빠져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²⁾

터툴리안이 군복무를 반대한 것은 화관과 함께 군 복무는 우상숭배와 관련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터툴리안은 군대에서의 종교적 관행을 잘 알고 있었고, 태양신 숭배, 군에서의 서약(誓約), 군기(軍旗)에 대한 숭상을 문제시했다. 군에서의 서약(sacramentum)은 군 최고사령관인 황제에게 상관의 명령에 따르고, 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것인데, 이 서약은 군 입대 시, 매년 정월 초하루, 그리고 황제의 취임기념일에 낭송되었다고 한다.²³⁾ 이런 복종선서 시에 군인들은 군기를 수호하겠다고 서약했다. 군기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병영 막사의 성소(adiculum)에 정중히 보관되었다.²⁴⁾

터툴리안은 서약 자체를 부당한 일이라고 간주했다. 즉 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약 외에 인간에 대한 서약을 합법적으로 추가 시킬 수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후 다른 주인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²⁵⁾라고 반문하고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터툴리안은 우상숭배를 하나님에 대한 대죄로서 살인 행위보다 더 중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간주했다.²⁶⁾

당시 로마제국은 이교적 관습과 종교, 황제 숭배라는 제국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군복무자가 이와 관련된 국가의식이나 종교 관행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군복무에의 허용은 우상숭배를 받아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특히 군복무 중에 강요받게 될 이교사원 경비, 금지된 음식의 음용, 서약(soldier's oath), 깃발, 시신(屍身) 화장, 그리고 군 내부의 각종 비도덕적 의식과 관행 등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았다.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의 군복무를 엄격하게 반대했는데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위험 때문인가, 아니면 피 흘림이나 살상 등 비폭력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한다. 그러나 존 헬게렌드(J. Helgeland)는 그의 “로마군대와 기독교”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AD 173-337)라는 논문²⁷⁾에서 터툴리안이 그리스도인들의 군복무를 반대한 것은 우상숭배였지 피 흘림이나 평화주의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저명한 고대교회사가인 캄펜하우젠도 터툴리안은 “군인들의 살해나 유혈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터툴리안이 염려했던 것은 우상숭배의 위험성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또 군대의 일상생활과 군대 의식에 있어서 이교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²⁸⁾ 캄펜하우젠이 「우상숭배론」을 인용하며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주된 요인이라고 해석한다. 「우상숭배론」은 제목이 암시하는 바처럼 우상숭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군복무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정죄한 것은 당연하다. 터툴리안이 우상숭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던 것은 그가 간음, 살인과 함께 우상숭배를 용서받을 수 없는 3가지 죄로 규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²⁹⁾

21) *De Corona Militis*, XI.

22) *Ibid.* Bainton, 70.

23) Helgeland, 154, 지동식편, 「로마제국과 기독교」 (한국신학연구소, 1983), 308.

24) Alfred von Domaszewski, "Die Religion des Romischen Heetes," *Westdeutschen Zeeitschrift für Geschichte und Kunst* 14(1895), 40-45. 지동식, 49에서 중인

25) *De Corona Militis*, 11.2.

26) *De spectaculis*, 2.8.

27) *Church History*, vol. 43, no. 2 [1974]. 149ff.

28) Campenhausen, 163. 오만규 56에서 중인.

터툴리안이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한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비폭력에 대한 의지가 중시되었다는 사실이다. 터툴리안은 피 흘림을 반대하며,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군인의 무장을 해제하셨다”는 언급 등에서 보여주듯이 터툴리안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범에 기초한 반 폭력적인 반전사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은 우상숭배와 무관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터툴리안은 우상 숭배 만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기대 또한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터툴리안은 그의 「우상숭배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전사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는 이 책의 저술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은 하르낙의 견해에 따라 그가 몬타니즘으로 기울기 이전인 198년에서 203년 어간에 쓴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책에서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가?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점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서약(Sacramentum)과 인간의 서약 사이에, 그리스도의 군기(軍旗)와 마귀의 군기 사이에, 빛의 병영과 어둠의 병영 사이에는 일치점이 없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가이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³⁰⁾

또 ‘무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아론이 군사용 벨트를 착용했고, 세레요한이 가죽 혁대를 차고 다녔으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군대를 지휘했고, 구약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평화시대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위버린 그 칼 없이 어떻게 군인 노릇할 수 있는가? 비록 세레요한을 찾아 온 군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어떤 백부장이 신앙을 갖기도 했지만 그러나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버리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군인의 무장도 해제하셨다.³¹⁾

존 드라이버(John Driver) 등을 포함한 역사적 평화교회 신학자들은 터툴리안이 군복무를 반대한 이유는 우상숭배의 가능성 외에도 살상 곧, 피 흘림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강조한다.³²⁾ 즉 터툴리안은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라고 반문하고 이는 부당한 것임을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³³⁾

법정에 호소하는 일조차 합당히 여기지 않는 평화의 아들들이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악행에 대해서도 양갈음을 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감금시키고 처형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³⁴⁾

말하자면 터툴리안은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칼로 행사되는 폭력이나 전쟁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즉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일뿐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어야 할 어떤 불가피성도

29) *De pudicitia*, XII.

30) *De Idololatria*, 19.2.

31) *De Idololatria*, 19.3.

32) John Driver, *How Christians Made Peace with War* (Scottsdale: Herald Press, 1988), 39-43.

33) J. C. Wenger, *Pacifism and Biblical Nonresistance* (Scottsdale: Herald Press, 1968), 7.

34) *De Corona Militis*, 11.2.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즉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피 흘림의 위협이 있는 군복무를 반대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군복무를 배척한다.” (Omni ope expulero militiam)³⁵⁾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다.

여기서 정리해야 두어야 할 점은 터툴리안은 「변증서」에서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실재를 말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왜 「화관론」에서는 군 복무를 엄하게 금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변증서」가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인 반면, 「화관론」은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즉 「변증서」에서는 이교도들에게 변증적인 목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병사의 복무를 언급했지만, 「화관론」에서는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신앙양심에 호소하여 모든 타협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³⁶⁾

오리겐(Origenus, 185?-254?)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은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근거로 군복무와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심지어 전쟁을 지지하는 듯한 본문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 반대의 의미로 해석했다. 유명한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 하리라.” 는 본문에서 칼을 투쟁과 교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본문을 비전(非戰)의 교훈으로 해석했다.³⁷⁾ 그는 구약에 나오는 전쟁들을 영적인 전쟁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그는 “만약 육적인 전쟁(구약의 전쟁기록들)이 영적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면 유대의 역사책들이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 전해졌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 했다.³⁸⁾ 오리겐은 구약의 전쟁사를 풍유화 함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들은 실제로서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리겐의 평화주의적 입장은 그의 「켈수스 논박」(*contra Celsum*)에 나타나 있다. 터툴리안과 마찬가지로 오리겐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리겐은 「켈수스 논박」 앞부분에서는 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충성이라는 주제에 할애하고 있다. 켈수스가 기독교인들의 군복무 반대를 제국에 대한 책임의 회피로 비난했을 때, 오리겐은 터툴리안이 변증서에서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제국에 충성하였고, 황제를 도왔다고 주장했다.³⁹⁾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제국과 황제를 대신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는 더 중요하게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마귀들과 내적이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황제를 위해 싸우는 것” 이라고 해명했다.⁴⁰⁾ 즉 기도로써 전쟁을 부추기며 평화를 파괴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이런 방법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 이상으로 제국에 충성하고 황제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⁴¹⁾

35) *De Corona Militis*, 11.6.

36) 오만규, 55

37) *Contra Celsum*, 5. 33.

38) Swift, 59; J. F. Kelly, 270에서 중인.

39) *Contra Celsum*, 8. 73.

40) Kelly, 270.

41) 헬제랜드는 오리겐은 터툴리안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반대한 것은 윤리적인가 보다는 종교적 이유였다고 주장한다. 즉 우상숭배적 의미 때문에 군 복무를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헬제랜드는 “오리겐이 군입대를 반대했을 때 그것이 실상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하도록 기도하여

이런 주장과 함께 오리겐은 로마의 사제들이 제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살상행위를 하지 않도록 군복무를 면제해 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군복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4. 4세기 이후의 변화

이러한 비전, 반전 전통과는 달리 콘스탄틴의 개종(312년)과 기독교의 공인(313) 이후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반전, 평화사상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캄펜하우젠은 “초기 기독교회는 평화주의적이었지만 콘스탄틴 대제 이후 교회는 제국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고, 교회는 이런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⁴³⁾

콘스탄틴의 개종과 기독교 제국의 건설 이후 군에서의 우상숭배에 대한 의문은 사라졌지만 피 흘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이제 문제는 기독교 군인들이 피를 흘리느냐 흘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 흘림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말하자면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의로운 전쟁’ 인가가 중요한 논쟁점이 된 것이다.

곧 그 반응이 나타났다. 350년 경 아다나시우스는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은 합법적이며, 칭송받을 일이라”고 했다. 25년 이후 암브로스는 “야만인들에 대항하여 고향을 지키고, 가정에서 약자를 방어하고, 약탈자로부터 자국민을 구하는 싸움은 의로운 행위”라고 보았다.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은 무엇이 의로운 전쟁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였다. 암브로스는 블레셋과 다른 이방족속들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증거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정당전쟁론을 야만족에 대항하여 싸우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확대 적용하였다. 특히 그는 394년 밀라노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귀족 유게니우스(Eugenius)와 싸우는 데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의 전쟁에 이 이론을 적용하였다. 데오도시우스는 새로운 다윗이었고,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⁴⁴⁾ 암브로스와 그의 교인들은 이 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암브로스에게 있어서 전쟁의 정당성은 원인의 정당성에 있지 않고 목적의 정당성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장군이 야만족과 싸울 때에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그 전쟁이 기독교 제국의 방어가 아니라 단순히 힘의 확장에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쟁의 목적은 평화이어야 한다는 것도 암브로스의 입장이었다. 또 비 전투요원에게 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지켜질 때 암브로스는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했다. 패전의 경우 비 전투요원 전체의 노예화를 가져오는 시대에서 이런 생각은 매우 발전적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거스틴(354-430) 때 와서 그리스도인의 참전권(參戰權)은 의로운 전쟁론으로 조직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의 스승 암브로스와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찾았다. 암브로스와 마찬가지로 어거스틴도 평화가 전쟁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스도인 군인은 침략자를 물리치고 패배자에게 관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독교가 380년 국가종교가 된 후 기독교의 비저항적 태도는 416년에 와서 완전히 전위되었다. 황제는 모든 군인들은 기독교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표했던 것이다. 이제 군복무와 기독교 신앙 간에는 아무런 충돌도 없었다. 불과 1세기만에 기독교의 입장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이것을 헤링(Hering)은 ‘기독교의 타락’(fall)이라고 불렀다.⁴⁵⁾

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동식, 311 참고.

42) *Contra Celsum*, 8. 73.

43) Helgeland, 150.

44) Kelly, 273.

특히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준제국적 성격의 제도화된 기구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전쟁에 대한 관점에도 변화가 수반되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서방 교회가 세속 권력과의 타협, 야합하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을 교회가 후원하였고, 반면에 제국은 정복한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개인의 결단과 관계없이 기독교신앙을 강요함으로써 교회의 후원에 보답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일단 교회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화하자 기독교 윤리와 도덕적 이상은 제국의 통일과 확장, 그리고 제국내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에서 타협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국가생활의 전 영역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 특히 폭력의 문제를 기독교 윤리 체계 안에 수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상 보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곧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5:39)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교훈이 포기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수도원이나 개인윤리의 영역으로 밀려나 버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국의 정복 전쟁은 이교도의 개종과 교화(教化)를 위한 하나님의 일, 곧 성전(聖戰)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세기 유럽의 양심으로 불리던 불란서의 성 버나드(St. Bernard)까지도 십자군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쟁 수행을 격려하고 독려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십자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념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이다. 폭력과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이뤄질 때 그것은 적극성을 띠게 되고, 적에 대한 종교적 증오는 전쟁의 폐해를 가증시키게 된다. 회교도의 정복전쟁이 그러했고, 십자군 전쟁,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종교전쟁이 그러했다. 이와 동시에 중세를 거쳐 오면서 기독교 공동체내의 전쟁관이 점차 복잡성을 띠면서 절대평화주의는 상대평화주의로, 그리고 정당전쟁론의 불가피성이 인정을 받아왔다.

콘스탄틴 이후의 교부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윤리에 근거하여 개인적 역할은 물론 공적으로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개인적 윤리 사항으로 폭력을 거부하였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고 가족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4세기 중엽에 와서 기독교인들은 광범위한 관련 영역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사랑으로써 공격자를 대항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악한들이 네 처를 죽이고 있는데 거룩한 체 하고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보호받을 수 없는 이웃의 생명에 대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자의 진정한 유익에 기여하기 위해 악을 저항해야 하지 않는가? 사랑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지만 사랑과 정의의 불연속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한 책임 의식에서 국가에서 범법자들을 제재하고 더 나아가서 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경찰권까지 부여해야 하는 일차적인 사유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쟁 그 자체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며, 최선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필요악적인 정화(淨化)로써 곧, 차선의 방책으로 용인되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암브로스오와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그리고 우리 시대의 바르트와 니이버로 연결되어 오면서 ‘의로운 전쟁’ 이론은 발전되어 갔다. 즉 저들은 전쟁은 악한 것으로써 전쟁을 반대하지만 악에 대항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적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서의 방어적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거의 일치하였다. 그래서 전쟁의 의도, 정당성 등에 대한 고려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45) Wenger, 13.

결론: 비폭력 평화사상의 대두

비폭력적 절대평화사상은 기독교권에서 소수의견으로 남아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트릴치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소종파형(sect-type) 기독교에 의해 계승되었다. 트릴치(Ernst Troeltsch, 1865-1923)는 그의 「기독교의 사회적 교훈」(*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에서 교회와 그 교회가 처한 사회-문화적 관계와의 태도에 따라 교회형 조직(church type)과 소종파형 조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협이라는 개념이었다. 즉 그는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혁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 역시 세상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트릴치는 기독교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교리, 이를테면 전쟁관과 같은 교리가 단순한 종교적 이념이거나 절대적 윤리적 표현이 아니라 언제나 외부적인 환경과 문화와의 타협에서 되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타협의 문제를 놓고 이를 아주 거부하는 형태가 소종파형이고, 완전히 타협해 버린 형태가 교회형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회형 조직은 기존 사회의 일부분이 됨으로써 생활 전반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려 하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야기 시키지 않으면서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협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트릴치의 말대로 전쟁관은 일종의 교회형 조직 속에서 타협의 길을 모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도 카다리파, 알도파, 보헤미아의 형제단과 같은 소종파형은 원시 교회의 무저항적 평화사상을 계승해 왔다. 그러나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 십자군까지 동원했던 ‘정당한 전쟁’ 관하에서 거의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시대에 와서 이 평화주의 사상은 다시 소생하였다. 이 사상의 발현은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트릴치가 말하는 ‘교회형’에서 탈피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들이 바로 재세례파였다. 급진적이고도 폭력적인 일부를 제외한 후터 공동체(Hutterite)와 메노나이트(Mennonite)교회는 무저항적인 절대 평화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전쟁이 없는 세계를 꿈꿔 왔던 대표적인 소종파였다.

루터나 칼빈 등은 소위 제도권 내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개혁자들이었고, 이런 점에서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는 루터나 칼빈은 여전히 중세적이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폭력이나 전쟁을 용인하는 입장이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 싸울 때 독일 제후의 손을 잡고 일했고, 농민 전쟁 당시인 1525년 5월에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질서를 파괴하는 폭동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칼로써 농민들을 진압할 것”을 제후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었다. 칼빈이나 쾰빙글리 역시 스위스 도시 국가의 국가-교회와의 관련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이나 펠릭스 만쯔(Felix Manz), 메노 사이먼스(Menno Simons) 등과 같은 재세례파 인물들은 이들과 달랐다. 이들은 신약에서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정교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이들은 국가교회 형태는 313년 이후부터 점차 확고해진 원시 기독교의 타락으로 보았다.

이 타락의 첫째 표징은 국가와 교회의 야합이었다. 이것이 국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무력과 강압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았다. 유아 세례를 반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모든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국가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타락한 교회의 두 번째 표징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과 전쟁관이었다. 폭력은 그것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신약 성경의 기독교와 초대교회 정신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이들은 교회와 국가 간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하였고, 이 기초위에서 절대 평화주의 사상을 견지했던 것이다.

재침례파의 대표적인 신조인 슬라이트하임 고백서(Schleitheim Confession)와 후터파의 대신조서에는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메노 사이먼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중생된 신자는 절대로 싸움으로 남을 속박하거나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집총과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국가 권력자들로부터는 물론이려니와 천주교회와 루터, 칼빈, 쾰링거 등 개혁자들로부터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저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모라비아로 헝가리로 다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로 그리고 미국으로 100여년을 주기로 하여 이동해 갔다. 이들의 평화주의적 반전사상 때문에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이민으로의 나그네 여정은 전쟁 없는 세계를 갈망하는 값진 희생이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오늘의 핵전쟁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는 징병에 반대하고 폭력에 저항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했고, 우상숭배와 피 흘림에 대해 부단히 경계했다. 라틴어로 문필활동을 했던 서방의 교부들은 폭력에 저항하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켰는데 이런 태도를 파티엔티아(patience)라고 불렀다. 영어의 ‘인내’ 라는 의미의 patience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저항하며 참고 인내했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4세기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땅의 질서, 권력, 세속적 야망과는 무관하거나 무관심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가 견지했던 나그네 의식을 버리고 이 땅의 질서, 국가 권력과 타협하기 시작했다. 이 안주(安住) 의식이 평화주의의 포기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 마린, A. (오만규역),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성광문화사, 1982).
박근원, “자급목회에 관한 시론,” 「신학연구」, 15집(1974).
이상규,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통합연구」4권 2호(1991. 6), 109-135.
지동식편, 「로마제국과 기독교」 (한국신학연구소, 1983).
켈리, F (방성규역),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이레서원, 2002).
- Bainton, R., *The Early Christian Attitude to War* (London: Headly Brothers, 1919).
Boren, H. C., *The Ancient World: An Historical Perspective* (NJ: Prentice-Hall, 1976).
Cadoux, C. J., *The Early Christian Attitude to War* (London: Headly Brothers, 1919).
....., *The Early Church and the World* (Edinburgh: T&T Clark, 1925).
Cahill, L. S., *Love your Enem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Driver, J., *How Christians Made Peace with War* (Scottsdale: Herald Press, 1988),
Harnack, A., *Militia Christi* (Tübingen, 1905).
Heering, G. J., *The Fall of Christianity, A Study of Christianity, The State and War* (London: Allen & Unwin, 1930).
Helgeland, J.,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AD 173-337," *Church History*, vol.43, no. 2(1974).
Hershberger, G. F., *War, Peace and Nonresistance* (Scottsdale: Herald Press, 1982).
Horsch, J., *The Principle of Nonresistance as Held by Mennonite Church* (Scottsdale: Herald Press, 1951).
Kertesz, G., *Christians, War and Peace* (Melbourne: Broughton Press, 1989).
Swift, L. J., *The Early Fathers on War and Military Service* (Wilmington, 1983).
Wenger, J. C., *Pacifism and Biblical Nonresistance* (Scottsdale: Herald Press, 1968),

영문초록

This is an essay on the early Christians attitude toward war and military service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before the Edict of Constantine. In this article Christians attitude to war and military service, especially concerned with non-participation of Christians in the military forces were discussed historically. The writer also reviewed the attitude and position of Adolf Harnack, C. J. Cadoux, G. J. Heering, John Horsch, and Guy F. Hershberger who shares opinion that the earlier church fathers and christian communities absolutely renounced war and refused military service. In this paper, especially focused on the reason of the non-participation of Christians in the military forces of the Roman Empire.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e writer reviewed scholars such as Hans Campenhausen, and John Helgeland who asserted that the only reason of the early Christians refusal to the military service was involvement of idolatry practice including emperor worship. And Harnack, Bainton and Horsch, and Hershberger or Pacifistic Mennonite scholars who emphasized pacifistic or peace loving motive also reviewed in the context of the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and early fathers.

Two figures representative of early Christian pacifism, Tertullian of Carthage, a late second century, and Origen of Alexandria, whose life began about a quarter century later, were dealt with in the later part of this paper, as the both addressed non participation in the military and in the war most directly. By way of conclusion the writer explored a swift change of the climate of the church on the subject of participation of military forces after conversion of constantine(312) and after he gave christianity legal status in the empire(313).

<강연2 자료>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ernando Enns (독일, 함브르크대학교 신학과 교수)

A study prepared for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entral Committee (Geneva, 2009) by the office of the WCC Decade to Overcome Violence.

The pioneers of a world without war are the youth who refuse military service. Albert Einstein

Executive Summary

This document responds to a request from Central Committee for a study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light of the 2006 analytical report of the UN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The study which is now presented to Central Committee by the WCC's DOV Office is divided in four parts:

The first part traces the discussion of and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WCC and the ecumenical movement. The WCC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o the UN in 1973. Several churches and related organizations, primari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spoken to the issue or have taken action in favor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econd part examines approaches to conscientious objection according to the UN analytical report, and to recent news. While the issue is complex, a few observations are pertinent: First,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by the UN as a human right. However, the practice in many countries is not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Furthermore, no conscription does not mean there is no need for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particular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There may be selective objection to specific duties or it may be that a soldier becomes a conscientious objector.

In the third part, some specific examples are given of how churches deal with the ques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several countries, especial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hurches or church related associations take particular action in favor of conscientious objection or to provide moral, spiritual and legal assistance to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ir struggle.

Finally, some observations, perspectives and recommendations are shared. While this study is open for further work as the discussion evolves and the issues persist, the conclusion is that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for the WCC to call on churches to sup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hurches have a role in advocating compliance with univers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oreover, in a context where conscription may have declined, but wars or armed conflicts take mostly civilian lives and do not comply with UN resolutions or international law, conscientious objection may increasingly be seen as a moral obligation, both by religious communities and by civil society. Furthermore, would it not be inconsistent of churches to call war immoral or illegal and not encourage their members to object enrollment in active duty and help them work through the issues and consequences, in Christ's footsteps?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the WCC has a role to play in promoting advocacy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human rights and as a moral, ethical and Christian position of principle, as well as in encouraging churches to assist conscientious objectors where they face prosecution or discrimination.

Introduction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as used by the United Nations and in this study means the refusal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religious or ethical reasons of conscience. The UN affirmation of the right to refuse to do military service does not imply that a conscientious objector's status *is* always recognized by the particular government but that it *should* be recognized.

Young conscripts may consider carrying and using weapons as contrary to their religious values. Consequently they refuse military service and opt for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Professional soldiers sometimes also become conscientious objectors, be it by changing their mind and their beliefs in general or by renouncing participation in a specific war.

However, conscientious objection has not been legalized in all countries and the option of alternative service may not be available.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scientious objectors are often subject to discrimination, prosecution, repeated punishment, and imprisonment.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e involved in an individual's decision not to serve in the military and not to train for or engage in armed combat. A decision to refuse to bear arms is linked to basic aspects of human dignity and personal integrity.

In 2006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entral Committee requested a study on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¹⁾ The study was to be undertaken "in light of the

analytical report” issued earlier that year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²⁾ and submitted to the Central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nd possible action.

Understand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aims of the WCC Decade to Overcome Violence. The issue is prominent in ecumenical peace work long before the Decade, for example, in the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³⁾ A culture of peace cannot be obtained by the use of armed force nor by passively refusing violent means, churches have noted, but by an active and constructive attitude and practice in the spirit of nonviolence, aiming for a just peace, following the teaching and example of Jesus Chr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orm the Central Committee and invite possible action on the human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religious, moral or ethical reas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General Comment No. 22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other jurisprudence of the Commission.⁴⁾

I.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WCC and the ecumenical movement

Many churches in the world affirm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ith statements, publications or supportive actions. Among them are a significant number of WCC member churches from various traditions – Baptist, Anglican, Lutheran, United Church, Pentecostal and Anabaptist.⁵⁾

Beyond the WCC membership, support for conscientious objection has come from the churches in the Catholic, Historic Peace Church, Adventist and other traditions.⁶⁾

Church organizations with a focus on conscientious objection include: WCC Decade to Overcome Violence,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CEC), the Catholic peace movement

1) “Final Report of the Public Issues Committee” (Document No. GEN/PUB 06), Central Committee, September 2006.

2)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E/CN. 4 /2006/51 – UNHCHR, 27 February 2006.

3) CEC and EAK Consult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Peace Service.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rogramme to Overcome Violence: a Theological Framework to consider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1995.

4)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s guaranteed by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8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is includes implicitly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General Comment No. 22 and the case law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et out explicitly.

5) Within these church families, some of the churches affirming the right of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re Church of England, Church of the Brethren, Episcopal Church USA, Evangelical Church in Germany/*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 United Church of Canada, United Church of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Uniting Church in Australia and Mennonite churches

6) Roman Catholic Church,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Quakers), Church of God in Christ (COGIC), Church of the Nazarene and Seventh-day Adventists.

Pax Christi International, *Evangelische Arbeitsgemeinschaft zur Betreuung der Kriegsdienstverweigerer* in Germany, and several associations initiated by Mennonites, such as the Korean Anabaptist Center, *Justapaz* in Columbia and the Military Counseling Network in Germany.

Sometimes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dealt with as a separate topic, but is included or implied in more general statements about peacemaking and disarmament. Examples are the Church of Ireland and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Generally, the churches that address and defend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istoric peace churches regardless of location and churche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Research for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not common for African or Asian churches to discuss the topic or to give active consideration to options for changing the situation. In Sudan, for example, pastors were tortured by rebels because they publicly condemned the forced recruitment of children and young men during the recent civil war.

We have no record of a church resolution condemning conscientious objection in general. A statement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KC) in 2001 spoke against the support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context of objection by members of the Jehovah's Witnesses. In the meantime the NCKC has moderated its opinion and advocated for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in 2008.⁷⁾

Orthodox Churches. Our research indicates that Orthodox churches generally do not sup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may be due to a factor present in the life of many churches, namely, the level of identification between church and nation.⁸⁾ In their history Orthodox churches have at times been supportive of defensive wars and wars of liberation.⁹⁾ So of course have many other churches. Nonetheless, Orthodoxy upholds the ideal of non-violent peacemaking¹⁰⁾ and we know of no written declar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ion. Killing in war is considered a sin and requires forgiveness.¹¹⁾ Orthodox member churches did not object to CEC statements in favour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Orthodox Peace Fellowship encourages young Orthodox Christians to become conscientious objectors.¹²⁾ There are also Orthodox voices requesting the Institute for Peace Studies in Eastern Christianity in Massachusetts to develop studies on the compatibility of states' practic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with the ICCPR.¹³⁾

7) Both NCKC's statements are available in Korean at: www.kncc.or.kr

8) O. Clément, „The Orthodox Church and Peace – Some Reflections“, Milano 1991, in: *For the Peace from Above: An Orthodox Resource Book on War, Peace and Nationalism*, Bialystok, Poland, Syndesmos, the World Fellowship of Orthodox Youth (ed.), Orthdruck Printing House, 1999, 175; Simion, Gh. M.: „Polegomena to a Peace Studies Model for Eastern Christianity“, in: *Journal of the American Romani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Simion, Gh. M. (ed.) Vol. 2005–2009, No.29–33, 2009, 81:86.

9) *Ibid.*, 175–176.

10) *Ibid.*, Metropolitan George of Mount Lebanon, „Exorcising War“, 172–173.

11) *Ibid.*; O. Clément, „The Orthodox Church and Peace – Some Reflections“, 81–83.

12) *Orthodox Christian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by J. Forest, 12 September 2008; <http://incommunion.org/articles/essays/orthodox-christians-and-conscientious-objection>, 22 May 2009.

13) Simion, Gh. M.: „Polegomena to a Peace Studies Model for Eastern Christianity“, *ARA Journal*, volume

Churches support conscientious objection for biblical, theological and ethical reasons. The refusal to bear arms is in agreement with the gospel and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especially in the Sermon on the Mount and the command to love one's enemies. Some churches feel bound by the Gospel to the wider tradition of non-violence. The rejection of killing even in war as a Christian option (or a Christian duty for the historic peace churches) is grounded in respect for the value and sanctity of human life. Often the churches' ethical reflections refer to the UN standards declaring conscientious objection a human right.

A public ecumenical position is outlined in the *Statement on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¹⁴⁾ submitted to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73 by the WCC-CCIA and eight NGOs.¹⁵⁾ The document emphasizes the "widespread and growing concern in the world's religious communities that young people who refuse to participate in a war on conscientious grounds should not be penalized for their moral stand."¹⁶⁾ A "conscientiously held conviction"¹⁷⁾ is further seen as "a vital and integral part of the individual who holds it."¹⁸⁾ The statement concludes: "(We) urge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to recommend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adoption of a declaration recognizing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 valid expression of the right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should have alternative means of service to the community available to them."¹⁹⁾ This recommendation was later adop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²⁰⁾ In one application of this policy in 2007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clud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under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which is guaranteed in Article 18 of the ICCPR.

After the 1973 statement, which interestingly does not contain any theological or biblical referenc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raised by the WCC in minutes, reports, programme proposals and a Central Committee Statement on Peace and Justice in 1983.²¹⁾ It arises in a 1989 minority statement²²⁾ and then in the final document of the

2005–2009, No.29–23, 87.

14) *The Churches in International Affairs: Reports 1970–1973*,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ed.), 1974, 136–138.

15) UN Symbol for this document: E/CN.4/NGO/171, of 9 March 1973.

16) *The Churches in International Affairs: Reports 1970–1973*,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ed.), 1974, 136.

17) *Ibid.*

18) *Ibid.*

19) *Ibid.*, 138.

20) See the commission's 1993 General Comment No.22, para.11, in UN document CCPR/C/88/D/1321–1322/2004, of 23 January 2007.

21) For a brief summary of the messag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se documents cf. Gibble, H.L.: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an Churche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 contribution to the conciliar process for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t Loccum, 25 to 28 September 1989*, Bremen, German Protestant Association for the Care of Conscientious Objectors (EAK, ed.),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JPIC) in Seoul, Korea, 1990. Here the term refers not only to military service but also to the payment of military taxes. Alternatives to both are demanded.²³⁾

Since Seoul 1990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has not received the same level of separate attention from the WCC. One reason, aside from the changed contex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might be the persistence of differing views among member churches concerning just war and the use of violence by Christians in particular situations.²⁴⁾ Opinions range from radical pacifism and the tradition of nonviolence to the theory of just war and the duty to defend one's home country. While the historic peace churches uphold a pacifist point of view, described by some as radical or idealist, other churches proclaim a position they describe as moderate or realist. For peace churches violence is never justified and cannot be reconciled with following Jesus. For other churches force can be a last resort to prevent gross injustices or the escalation of violence. Some churches see military service as a Christian duty; other churches see it as an impossibility. In-between are churches that see military service as an option for Christians. This middle group typically refer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to make his or her own decision for or against military or armed service. Examples are the Roman Catholic Church²⁵⁾, the EKD²⁶⁾, the Episcopal Church²⁷⁾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²⁸⁾. In the Protestant tradition this inclusive position is often a result of differences within each church ranging from pacifism to the support of the military.

Related objections to 'just war'. There appears to be a tendency among certain churches of

-
- 1991, 15–17; Gathered for Life. Official Report IV Assembly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D. Gill (ed.), WCC Publications, 1983, 133: „We strongly reiterate the Central Committee's appeals to the churches to (...) e) pay serious attention to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 22) Minority statement by the historic peace churches and other delegates: cf. Frieden in Gerechtigkeit. Dokumente der Europäischen Versammlung, Basel/Zürich,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and the Council of European Bishops' Conferences (ed.), 1989, 164; English version in a summarized form cf. Peace with Justice. The official documentation of the European Ecumenical Assembly, Basel, Switzerland. 15–21 May, 1989, Geneva,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ed.), 1989, 132.
- 23) *Now is the Time: Final Documents & Other Texts,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Seoul 1990, revised version, Geneva 1990, 29.
- 24)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discussion c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th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CCIA report to the WCC Central Committee, Geneva 2003; Gible, H.L.: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an Churche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 contribution to the conciliar process for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t Loccum, 25 to 28 September 1989, Bremen, German Protestant Association for the Care of Conscientious Objectors (EAK, ed.), 1991, 11–27..
- 25) “Bishops' President Deeply Regrets War; Call for Prayer, Protection of the Innocent, And Steps to Avert Humanitarian Crisis”, 19 March 2003; www.usccb.org/comm/archives/2003/03-065.shtml 14 May 2009.
- 26) Schritte auf dem Weg des Friedens. Ein Beitrag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EKD-Texte 48, 1994 (3rd edition 2001), art. 4b; www.ekd.de/EKD-Texte/44654.html , 13 May 2009.
- 27) “Episcopal Church's View”, www.episcopalchurch.org/50917_51107_ENG_HTM.htm?menupage=51106, 13 May 2009.
- 28) “Tacoma congregation declares sanctuary for war resisters,”
http://www.umc.org/site/c.gjJTJbMUlUe/b.1802107/k.B1E4/Tacoma_congregation_declares_sanctuary_for_war_resisters.htm, 14 May 2009

the ecumenical community to break from the classical theory of just war. Although the EKD, the US Episcopal Church and some Orthodox churches concede that violence might be used as an ultimate rationale, they admit that in times of modern warfare it is problematic to call a war justified.²⁹⁾ The Orthodox Church tradition has never had a theory of just war.³⁰⁾ Among European Christians there are more and more voices criticizing attempts to resolve conflicts militarily because of indiscriminate use of force, acts of brutality and escalation of violence resulting in large numbers of civilian deaths and widespread destruction. The *Mennonite and Catholic Contribution to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Decade to Overcome Violence*, January 2008, sets a goal of "achieving an ecumenical consensus on ways Christians might advocate, together, to replace violence as a means to resolve serious conflict in society."

Skepticism towards the theory of just war has deep roots in the positions of the WCC.³¹⁾ While member churches have advocated humanitarian projects that may have included armed liberation, for instance in Southern Africa during the apartheid struggle, they also condemned war firmly, for example, calling war "a sin against God" at the first Assembly shortly after World War II and advocating living "without resort to arms" during the Cold War. The 1990 JPIC convocation in Seoul emphasized the "overcoming of the institution of war as a means to resolve conflicts"³²⁾. Since 1994 the WCC through the Programme and then Decade to Overcome Violence supports non-violent alternatives to war to build a culture of just peace. In that perspective the way of peace-building is to give priority to non-military instruments in order to facilitate protection and peace.³³⁾ The 2006 Assembly plenary on *Overcoming Violence: Living a culture of peace* stated: "We will reject every attempt to use violence and fear as tools of politics"³⁴⁾ and "Peace-building in non-violent

29) Schritte auf dem Weg des Friedens. Ein Beitrag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EKD-Texte 48, 1994 (3rd edition 2001), art. 2f-g; www.ekd.de/EKD-Texte/44654.html, 13 May 2009; Episcopal Church's View; www.episcopalchurch.org/50917_51075_ENG_HTML.htm?menupage=51074, 04.05.2009; Youth in Military Service,

www.episcopalchurch.org/50917_51107_ENG_HTML.htm?menupage=51106, 04.05.2009; O. Clément, The Orthodox Church and Peace – Some Reflections, Milano 1991, in: „For the Peace from Above“. An Orthodox Resource Book on War, Peace and Nationalism, Bialystok, Poland, Syndesmos, the World Fellowship of Orthodox Youth (ed.), Orthdruk Printing House, 1999, 176.

30) Although the Orthodox church tradition does not include a theory of just war, defensive wars and wars of liberation have been permitted as a lesser evil. Ibid., 175–176; Metropolitan George of Mount Lebanon, „Exorcising War“, in: For the Peace from Above: An Orthodox Resource Book on War, Peace and Nationalism, Bialystok, Poland, Syndesmos, the World Fellowship of Orthodox Youth (ed.), Orthdruk Printing House, 1999, 158.

31) Now is the Time: Final Documents & Other Texts,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Seoul 1990; revised version, Geneva 1990, 27.

32) Ibid., 28.

33)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th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CCIA report to the WCC Central Committee meeting in 2003, Geneva, July 2003;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erspective in Context, G. Kerber, May 2008. Further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th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Geneva, S. Asfaw/G. Kerber/ P. Weiderud (ed.), 21–23 April 2005.

34) Plenary "Overcoming Violence: Living a Culture of Peace". Mid-Term of the Decade to Overcome Violence 2001–2010: Churches seeking reconciliation and Peace. Call to recommitment, September 2005, in: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WCC publications, 2007, 237.

ways is a Christian core virtue and an imperative of the gospel message itself.³⁵⁾ It is also in this spirit that the WCC has positioned itself on the emerging norm known as Responsibility to Protect, warning against the militarization of humanitarian missions and against using humanitarian need as a pretext for armed intervention.

Biblical foundations. The ethical behind the Decade to Overcome Violence are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especially in the Sermon on the Mount: The merciful, the peacemakers and the persecuted are blessed in the beatitudes. Jesus teaches love for one's enemies and advises going of a second mile as a non-violent form of protest (Matt. 5). Christ's death on the cross is the symbol of this kind of resistance, a provocation without force to the mighty. When he is arrested, Jesus forbids his disciple to defend him with the sword (Matt. 26: 25).³⁶⁾

In the light of this gospel the WCC and a range of member churches state with increasing clarity that war can not be theologically justified.³⁷⁾ Advocating for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then only being consistent.³⁸⁾ Even when objection is not permitted by legislation certain churches call it a "duty of Christians to put the cross above the flag"³⁹⁾ and to "obey God rather than men"^{40),41)}

The WCC position on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lso links biblical precepts with certain standards set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WCC affirms "that human rights are God-given and that their promotion and protection are essential for freedom, justice and peace."⁴²⁾ Human rights are to be defended, because God created man and women in God's image (Gen. 1:26; 9:6). Human lives are of an indestructible value and unalienable dignity, affirmed by God's blessings (Gen. 1:28), and protected by God's commandments (Gen. 9:6; Ex. 20:12-17). Thus, the human right of freedom of conscience can be interpreted as respecting the dignity of each person, whilst

35) Ibid.

36) "Biblical and ethical reflections on nonviolence", cf. M. Kässmann, *Overcoming Violence. The Challenge to the Churches in All Places*, WCC Publications, Geneva, 1998 (revised, 2nd edition 2000), 26-29; Margot Käßmann, *Gewalt überwinden: eine Dekade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Hannover, Lutherisches Verlagshaus GmbH, 2000, 48-51.

37) *Now is the Time: Final Documents & Other Texts*,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Seoul 1990, revised version, Geneva 1990, 27.

38) Ibid., 29;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Military Service*, June 2004, statement of the US Decade to Overcome Violence Committee.

39) 1934 General Convention, cit. in: www.episcopalchurch.org/50917_51107_ENG_HTM.htm?menupage=51106, 13 May 2009.

40) Acts 5: 29, cit. in the *Statement of the Church of Brethren on War*, 1970.

41)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Peace" 1968 General Conference and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 318,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Peace*; http://gbgm-umc.org/global_news/full_article.cfm?articleid=1405, 13 May 2009; *Now is the Time. Final Documents & Other Texts.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Seoul 1990, revised version, Geneva 1990, 27; the Roman Catholic Church shares this opinion: cf. *Compendium to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Master of Social Doctrine and Evangelical Witness to Justice and Peace*, art. 399.

42) *Now is the Time: Final Documents & Other Texts*,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Seoul 1990; revised version, Geneva 1990, 21.

the right to object to serve in the military can be seen an expression of esteem for God-given human life.

II. UN and national approaches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section is based mainly on the report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2006⁴³⁾ and 2008⁴⁴⁾ with supplementary information from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⁴⁵⁾, publications of the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QUNO)⁴⁶⁾ and interviews with WCC and member church representatives.⁴⁷⁾

Complex differences. Even in secular term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 complex issue. In one common scenario, conscientious objection is an individual decision to object to fighting and to the use of a weapon. The individual may accept the army as necessary, but is not willing to participate personally. In a second scenario, conscientious objection may refer to the whole military system and the refusal to participate in it.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conscience is defined in different way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objectors often maintain that their conscience forbids them from taking human life, even in wartime. In Latin America young men refuse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because they do not support the brutality within the military itself, regardless of war. They cannot bear becoming part of a system which disregards human rights and oppresses indigenous people.

In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some soldiers refuse to serve only in certain wars. Their conviction is that military actions such as Gaza (2009) or Iraq (2003-?) cannot be morally justified. The UN term for them is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ors".⁴⁸⁾

Increasing recognition. There is a general tendency for governments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in law and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two UN reports. Among the states offering alternative non-combatant or civilian service to conscientious objectors are 18 European countries, USA, Mexico, Tunisia, Russia and Armenia. Adding to this trend, 18

43)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7 February 2006 – E/CN. 4/2006/51.

44)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 August 2008 – A/HRC/9/24.

45) www.wri-irg.org 13 May 2009.

46) www.quno.org 13 May 2009.

47) Important supplementary information is indicated by the endnotes.

48) It shall be mentioned that there are more good reasons to refuse military service than reasons of conscience. In Sudan for example young people tried to evade the conscription during the civil war (1983–2005), because they feared for their own life. They knew that they would be sent to the frontline directly after military service and probably be killed. In their horror of the war they did not reflect on principles of conscience any more.

mostly European states have suspended or end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ltogether since 1995: Belgium, the Czech Republic, France, Hungary, Italy, the Netherlands, Peru, Portugal, Slovakia, Spain, Slovenia, Georgia, Morocco, Bulgar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Lebanon, Romania and Ukraine.

Nevertheless, serious problems remain, for example, in South Korea, Israel, Eritrea and Turkey, where conscientious objectors face discrimination, are prosecuted, punished and often sent to prison. Such practices are condemned by the United Nations⁴⁹).

Despit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some countries are not in compliance with UN standards. One example is having time limits on applying for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In 18 of 29 European countries with conscription programmes, objection is recognized only before military service begins. Only seven European states allow people serving in the military or reservists to apply for objector status.

A small number of states including Germany,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mong soldiers who volunteered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These few states recognize that convictions of conscience may alter after the entry into the army.

Selective objection.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 to a certain war is rarely recognized. Whereas US military personnel who signed up voluntarily may apply for general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several of them have recently been prosecuted as deserters for specifically objecting to service in Iraq or in Afghanistan. Many US war resisters flee to Canada with their families and ask for a refugee status. Although the UN encourages states to grant asylum to persecuted conscientious objectors⁵⁰), in Canada they are faced with deportation, imprisonment back in the United States and, according to one church group, having their children taken away.⁵¹

Israel is another current example of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 – in the case of conscripts doing Israel'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Many of the Israeli objectors are not against the army in general but against the occupation of the Palestinian territory and

49)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states that States should “not (...) discriminate amongst conscientious objectors on the basis of their particular beliefs” and calls upon governments to “refrain from subjecting conscientious objectors to imprisonment and to repeated punishment fo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50)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The United Nations analytical report of 2006 makes it clear, that the asylum offer shall also apply to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ors „avoiding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ly condemned war involving conduct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51) “Auf der Flucht vor Amerika,” by A. Heide, in: Die Zeit, number 17, 20 April 2006; www.zeit.de/2006/17/US_Deserteure_17, 16 May 2009; “Open Letter to the Right Honourable Stephen Harper, Prime Minister of Canada”, by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the 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 (Quakers) and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 March 2009; <http://mcc.org/canada/ottawa/rivera%20letter.pdf>, 13 May 2009.

involvement of the military in house demolitions and harassment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 In recent years the "refusenik" move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s increased.⁵²⁾ Like males, Israeli Jewish women are recruited at the age of 17. Resisters are often still teenagers when they face their first prison term. Many objectors are repeatedly punished, which is not in compliance with United Nations standards.⁵³⁾

In many countries it is not sufficient only to claim conscientious objection, but it is required to prove the integrity of one's conviction in a personal interview.⁵⁴⁾ This was the case in Switzerland, but the practice was dropped in 2009. Performing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1.5 times longer than military service was deemed to be sufficient proof of the objector's motivation.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Estonia, Finland, Greece and Moldavia have been condemned by the European Committee on Social Rights for their "excessively long periods of alternative service". UN standards are that civilian service 1.7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is punitive⁵⁵⁾.

The United Nations analytical report criticizes practices which limit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only to certain religious denominations or to people who object for religious reasons. Also, this WCC study found no church that support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exclusively for religious reasons. According to a Quaker organization⁵⁶⁾ in Europe, that it is generally the national Ministry of Defense which decides on the validity of non-religious claim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calls upon states to offer alternative servic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For example, 18 European countries offer civilian service outside the armed forces, while some other European states allow civilian or noncombatant military service.⁵⁷⁾ In Cuba substitute service is only possible

52) The movement is also called Courage to Refuse: www.couragetorefuse.org/english/default.asp, 13 May 2009; especially the young objectors take part in the network "Shministim".

53)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states that „no one shall be liable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54) Acceptance without enquiry in its purest way can only be stated for Paraguay. In other countries, such as Finland (and Sweden), the reckless disregard of the consequences of a longer civilian service replaces the enquiry. Cf. *Military recruitment and Conscientious Objection: A Thematic Global Survey*, by D. Brett,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 (ed.), 2005, 71; In 16 of 34 examined states an enquiry normally takes place or can take place. *Ibid.*, 72–74.

55)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7 February 2006 – E/CN.4/2006/51, 14;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 August 2008 – A/HRC/9/24, 4.

56)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Brussels, April 2005; www.quaker.org/qcea/coreport, 20 May 2009.

57) *Ibid.*

within the structure of the army.⁵⁸⁾ This was also the case in Ecuador until 2007 when a court ruled that any alternative service within the armed forces was irreconcilable with conscientious objection.

Military service can be avoided by paying a tax in some countries, including Albania, Ecuador, Georgia, Turkey, Uzbekistan and Bolivia. In Bolivia, where military service has been known for brutality, families put money together to buy an expensive military booklet that exempts their sons. But buying a booklet is not an option for poor families. This study was not able to clarify whether conscientious objectors also have to pay the tax, but in 2005, Alfredo Diaz, a Jehovah's Witness appealed to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reached a settlement with the Bolivian government including his exemption from the military tax.⁵⁹⁾

In Switzerland the tax has to be paid in addition to doing civilian service.

The UN report calls attention to exceptions to the general trends in favor of granting conscientious objection, including:

-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largest numbers of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world – about 700 each year.⁶⁰⁾ Most of them are Jehovah's Witnesses. Plans for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were stopped in 2007, but political debate of the issue raised public awareness and the number of non-Jehovah's Witness objectors increased.
- In South Korea, Cuba and Israel, public support for universal military service is linked to national perceptions of external threats. However, the government of Israel tol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cently it would begin promoting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providing alternative service options.
- In Eritrea th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within the army increased after the border war with Ethiopia in the late 1990s. Since 2002, all students including females are forced to finish their 12th year of school at a military base. There are persistent reports of violence against conscripts and especially against women, reprisals for refusing to have sex with commanders, suicides among conscripts, Eritreans becoming refugees to avoid military service, relatives imprisoned for allegedly helping the fugitives, and preventive arrests of draft-age youth. The UN has called on states to grant refugee status to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Eritrea.

III. Church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conscientious objection

58) This is a general practice, although it is not guaranteed by legislation. Cf. Interview with Dr. Reinerio Arce, moderator of the Senate of the Presbyterian-Reformed Church in Cuba.

59) The tax as a substitute to military service is not to be confounded with the refuse of some members of the historic peace churches to pay the part of taxes of the general income which is assigned for the military.

60) www.wri-irg.org/news/2004/korea04-en.htm, 19 May 2009.

The churches commitment to advocate for a universal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s strengthened during the WCC Decade to Overcome Violence. The central call is for all governments to recognize the status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addition to public statements of commitment, many churches offer practical help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d intercede on their behalf.

Churches use resolutions, open letters, pastoral letters, reports, minutes, periodicals, press releases and news on church homepages. A statement by the US DOV Committee is one⁶¹⁾ of many such actions among WCC member churches. Church positions generally are in agre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analytical report of 2006, as discussed above.

In addition, some churches take up issues of amnesty for war resisters, refusal to pay or exemption from the portion of their income taxes that supports their country's military or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Peace Tax". Such positions are found in the historic peace churche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nd the WCC⁶²⁾. The question of child soldiers is only rarely addressed in the context of conscientious objection,⁶³⁾ this study found.

The Mennonite Church, Quaker organizations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Quaker Peace and Social Witness, and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and Pax Christi International are examples of groups with an international commitment to support conscientious objectors. Quakers and Pax Christi work closely with the United Nations and hav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tatus like the WCC Church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Affairs.

In most cases, church-related support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s local. Practical assistance generally consists in counseling persons affected by military service. Some provide sanctuari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others mount campaigns to support their rights. The active groups are not necessarily established churches, but church-related associations which are often ecumenical. Individual Christians also participate in civil society peace-networks that are action-oriented. Some examples of local church responses follow.

61)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Military Service," June 2004, statement of the US Decade to Overcome Violence Committee.

62) "United Church Social Policy Positions. Conscientious Objection and Policy Taxes," 1992; www.unitedchurch.ca/beliefs/policies/1992/c513, 20 May 2009; Statement of the Church of Brethren on War, 1970; www.cobannualconference.org/ac_statements/70War.htm, 20 May 2009; "Resolu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axes (Mennonite Church), 1983", www.gameo.org/encyclopedia/contents/R486.html, 20 May 2009; "Committee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Paying for War" Quakers, New York Yearly Meeting, 2009; *Now is the Time: Final Documents & Other Texts,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Seoul 1990 ; revised version, Geneva 1990, 29.

63) The only example found in this study: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tatement by Pax Christi International, 1997.

North America. This study found the largest number of church initiatives in support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Canada and the USA. Also, of all local churches contacted for this study, North American churches provided the most information. This is an indicator that DOV's objective to speak out for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meets their interests, although the issue is contested certain conservative churches.

Many denominations have peace fellowships which take a stand from their churches' point of view but with an increased emphasis on peace and nonviolence. They provide practical and sometimes ethical and biblical information and advice. The general aim is to persuade young people not to register for the army and to encourage soldiers to consider conscientious objection. There are (in alphabetical order) Adventist, Catholic, Episcopal, Lutheran, Orthodox and Presbyterian Peace Fellowships.⁶⁴⁾ There is a Mennonite Church USA Peace & Justice Support Network and the Roman Catholic-related Pax Christi USA.

These ministries include an associ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⁶⁵⁾, a legal counseling service near three US military bases, a toll-free telephone hotline for soldiers trying to leave the military⁶⁶⁾ and a Centre of Conscience and War that offers inter-religious counseling⁶⁷⁾. In one parish-level example,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Tacoma, Washington, surrounded by military bases, provides a sanctuary and essential information for soldiers with moral qualms about taking part in the US wars in Iraq and Afghanistan.⁶⁸⁾

In Canada, the Anglican Church of Canada, the Mennonite Church,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nd the Quakers support US war resisters who ask for asylum. These churches provide sanctuary including protection and practical help. They write open letters to the government requesting recognition for war resisters as refugees.⁶⁹⁾

Europe. For more than 50 years the German Protestant Association for the Care of Conscientious Objectors (EAK) has advised young men confronted by the decision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service.⁷⁰⁾ Every established Protestant church of the EKD has commissioner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civil service. There is also a chaplainc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d serving conscripts. Future pastors and priests are exempt

64) Further information: www.adventistpeace.org; www.catholicpeacefellowship.org; www.episcopalpeacefellowship.org; www.lutheranpeace.net; www.peace.mennolink.org; www.incommunion.org; www.paxchristiusa.org; www.presbypeacefellowship.org.

65) www.epfnational.org/digital_faith/dfcfiles/185

66) Further information: www.quakerhouse.org/Default-oldt.html

67) Further information: www.centeronconscience.org

68) "Tacoma congregation declares sanctuary for war resisters," by P. Jeffrey, 20 June 2006; www.umc.org/site/c.gjJTJbMUluE/b.1802107/k.B1E4/Tacoma_congregation_declares_sanctuary_for_war_resisters.htm, 22 May 2009.

69) One example: "Open Letter to the Right Honourable Stephen Harper, Prime Minister of Canada," by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the 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 (Quakers) and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 March 2009; <http://mcc.org/canada/ottawa/rivera%20letter.pdf>, 22 May 2009.

70) Further information: www.eak-online.de

from conscription.

The Mennonite-supported Military Counseling Network assists US soldiers stationed in Germany, Iraq and South Korea.⁷¹⁾ From 2003 to 2005 the MCN assisted more than 20 soldiers in Germany and Iraq to apply for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but most applications were denied.⁷²⁾ One German NGO is currently preparing a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axes and German church positions on the issue.⁷³⁾

In Switzerland, church groups especially the Mennonites⁷⁴⁾ participate in a network called Schweizerisches Zivildienstkommittee/Swiss Civilian Service Committee, which provides counseling to people applying for or doing their civil service and lobbies the parliament in Bern. Individual clergy and church members also participate in networks as Groupe pour une Suisse sans armée⁷⁵⁾, Church and Peace⁷⁶⁾ and the DOV. In 2007 the Federation of Protestant Churches in Switzerland advocated that civilian service be reduced to 1.3 the time of the military service.⁷⁷⁾ In 2009 Swiss Quakers sent an open letter to the government requesting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abroad.

During the Balkan wars of the 1990s, leaders of Pentecostal churches, the Church of the Nazarene, the Seventh Day Adventists and the Baptist churches in Croatia, Bosnia and Serbia encouraged conscientious objection. During the communist period in Hungary, most male members of the BOKOR⁷⁸⁾ movement wer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spent time in prison.

Other reg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t is generally difficult for churches to speak out on this issue. This is especially true where the majority of the society does not support conscientious objection, the no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or civilian disobedience is not widespread, or where the state system depends on military support.

In Israel, Korea and Columbia church-affiliated organizations support conscientious objectors.

71) Further information: www.getting-out.de

72) www.commondreams.org/cgi-bin/print.cgi?file=/news2005/0222-15.htm, 30 April 2009.

73) The title will be: Militärsteuer-Verweigerung und Kirchen in Deutschland – Kirchliche Reaktionen und Positionen zur Absicht der Militärsteuer-Verweigerung; available on the internet from June onward; foreseen links: www.netzwerk-friedenssteuer.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71&Itemid=105; <http://cpti.ws> – here under rubric CPTI Documents.

74) The engagement of the Swiss Mennonite B. Sägesser is one example: B. Sägesser, Zivildienst – Ein Engagement / Service civil – un engagement / Servizio civile – Un impegno, in: Zivildienst – Ein Zeitzeuge / Service civil – un témoin / Servizio civile – una testimonianza, Bern, Gemeinschaft Schweizerischer Zivildienstleistender (ed.), 2002 (2nd edition 2006), 15–20.

75) Further information: www.gssa.ch/spip

76) Further information: www.church-and-peace.org

77) „Vernehmlassung zur Revision des Zivildienstgesetzes und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Wehrpflichtabgabe“, SEK – FEPS, 1st October 2007; www.sek-feps.ch/media/pdf/stellungnahme/Zivildienst_SEK07_final-d.pdf 22 May 2009.

78) BOKOR refers to the burning bush and is the name of a Catholic grassroots movement committed to bible study, unconditional love, nonviolence and social action. See also www.bocs.hu

Pax Christi is present in Israel and the Korean Anabaptist Center⁷⁹⁾ counsels objectors and visits imprisoned objectors. In Columbia, th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⁸⁰⁾ focus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among young people and the Mennonite organization Justapaz carries out education in non-violence and peace-building and advocates for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vailable on African churches and the subject of conscientious objection. Research indicates that issues of child soldiers, food supplies and HIV/Aids prevention take precedence in countries in conflict, as do church-related actions for peace, nonviolence and reconciliation. A church leader in Madagascar recently urged Christians in the military not to commit acts of violence⁸¹⁾, in Sudan's long civil war pastors were tortured for speaking out against forced conscription and child soldiers, and churches in many countries have played key roles in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es, in reintegrating former combatants and in weapons collections programs.

In Armenia and Turkmenistan, all conscientious objectors belonged to the Jehovah's Witnesses – 80 people in Armenia alone.⁸²⁾ They receive some support on-line from Forum 18 News Service, a Christian-related web and email initiative to provide reporting and analysis on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notably in Belarus and Central Asia. The name Forum 18 refers to Article 18 on religious freedom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forum also addresses human rights requests to government officials and seeks discussion with them.

In Latin-America, there appear to be reservations in regard to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Attitudes have to be interpreted in their regional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 In Cuba about ten years ago three parliamentarians, who were Presbyterian pastors, started a lively discussion about the necessity for a legal guarantee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y were informed that in spite of the lack of legislation, in practice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already offered alternative service within the armed forces – for example, in agriculture and office work. In the end the parliamentarians accepted this existing practice, because they feared a misuse of the legal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form of alternative service reportedly remains in place.

The Presbyterian-Reformed Church in Cuba maintains a programme for Swiss conscientious objectors to participate in the Cuban alternative service explained above. One or two Swiss

79) Further information: <http://en.kac.or.kr/home>

80) Further information: www.forusa.org

81) This was reported by Ekklesia, 18 March 2009; www.ekklesia.co.uk/node/8989 28 May 2009.

82) "Turkmenistan: Will the state respect everyone's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by F. Corley, 31 July 2008; 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1166, 27 May 2009; „Turkmenistan: Conscientious objector convicted as criminal“, 20 April 2009; 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1285, 27 May 2009; „Armenia: Imprisonment of some 80 conscientious objectors not a human rights issue“, by F. Corley; 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1228, 27 May 2009.

conscripts each year avail themselves of this opportunity.

In Bolivia, there are increasing voices in public advocating for civilian service as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Many individual Christians support these calls, especially feminists, one source noted. Established churches, however, generally do not support conscientious objectors – reportedly because they are working with the government to promote a reform of the army. The Methodist Church provides classrooms and teachers for an education campaign for poor children organized by the military. Another reason for the position of Bolivian churches is cultural. In indigenous culture military service is an important rite of passage. When adolescents come back from the army, they are considered to be adult men. Therefore, conscientious objectors risk being marginalized in society.

IV. Observations, perspectives and recommendations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the DOV is to challenge the global trend toward militarization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aspect of violence. The DOV's basic framework states that violence, and therefore also war, cannot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It sets out an explicit goal to encourage churches to relinquish any theological justification of violence. Surely this also includes state or military violence. This discernment is a first step in the process to overcome violence.

The conviction to not carry or use a weapon is to be understood as an ideal. It does not imply condemnation of persons who serve as soldiers to defend their people and their families. In her book on the Decade to Overcome Violence, Margot Käßmann, the Lutheran Bishop of Hannover and one of the early promoters of the Decade, appeals for humbleness among advocates of nonviolence: "We shall have in mind that nobody knows if he or she would have the strength to resist the use of violence in extreme situations."⁸³⁾

Nevertheless the DOV takes the stand that even if there might be ethical or political reasons, fighting a war cannot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gospel. As illustrated above, an increasing tendency among churches can be observed to dissociate from the classical theory of just war. Yet, in spite of the Decade, no general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whether the use of military force is justifiable and can be defended for Christians. As part of this process of discernment, WCC member churches should be encouraged to focus on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study shows that:

- Numerous church initiatives exist in support of conscientious objectors – most of them in

83) M. Käßmann, *Overcoming Violence. The Challenge to the Churches in All Places*, Genva, WCC Publications, 1998 (revised, 2nd edition 2000), 28–29; M. Käßmann, *Gewalt überwinden: eine Dekade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Hannover, Lutherisches Verlagshaus GmbH, 2000, 51–53.

the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 Attention by churches to the challeng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needed in many places.
- Churches that did not take a stand on the issue, as far as we know, do not speak *against* conscientious objection.
- Among churches who advocate in favor of conscientious objection, controversy remains. The Historic Peace Churches refuse to participate in the military in all circumstances. In the other churches, the point of view is that both civilian service and military service may be Christian opt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sensus might be reached to advocat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Everybody who feels that he or she cannot bear weapons for religious or other reasons of conscience should have the possibility to object without being submitted to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Therefore it seems appropriate for the WCC to once again advocate for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o do so would be a witness for justice and against violence in numerous countries today, would carry out a recommendation placed on the international ecumenical agenda by the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in Seoul 30 years ago, and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defined in part b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ix decades ago.

In speaking out for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WCC could speak out for churches whose voices may not be heard on this issue, for example, in Sudan. It would encourage churches in different countries to become more engaged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gether. Churches and related ministries have proved they are able to prevent the marginalization and discriminatio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in many countries suffer. Inasmuch as the Bible calls us to abandon violence, churches have an obligation to support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in trouble for following biblical teachings. Often objectors are very young when they refuse to go into the army. In many places this takes much strength and courage.

* * *

The research on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work in progress. If you have further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in your country or about your church please write to DOV@wcc-coe.org, with the subject header "Conscientious Objection Stud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e resources for this study can be consulted at the DOV office of the WCC, 150 route de Ferney, 1211 Geneva 2. Certain references are taken from the WCC's archives. Special thanks are due to Angela Schnepel, DOV intern from March to July 2009, who worked diligently to research and write the first draft this study document.

Useful Resources

Books and articles

Clément, O: *The Orthodox Church and Peace – Some Reflections*, Milano 1991, in: „*For the Peace from Above*“. *An Orthodox Resource Book on War, Peace and Nationalism*, Bialystok, Poland, Syndesmos, the World Fellowship of Orthodox Youth (ed.), Orthdruck Printing House, 1999.

Gibble, H.L.: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an Churche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 contribution to the conciliar process for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t Loccum, 25 to 28 September 1989*, Bremen, German Protestant Association for the Care of Conscientious Objectors (EAK, ed.), 1991, 11-27.

Kässmann, M.: *Overcoming Violence. The Challenge to the Churches in All Places*, Genva, WCC Publications, 1998 (revised, 2nd edition 2000), 26-29; Margot Käßmann, *Gewalt überwinden: eine Dekade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Hannover, Lutherisches Verlagshaus GmbH, 2000, 48-51.

Metropolitan George of Mount Lebanon: *Exorcising War*, in: „*For the Peace from Above*“. *An Orthodox Resource Book on War, Peace and Nationalism*, Bialystok, Poland, Syndesmos, the World Fellowship of Orthodox Youth (ed.), Orthdruck Printing House, 1999.

Simion, Gh. M.: „Polegomena to a Peace Studies Model for Eastern Christianity“, in: *Journal of the American Romani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Simion, Gh. M. (ed.) Vol. 2005-2009, No.29-33, 2009, 81-90.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th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Geneva, S. Asfaw/G. Kerber/ P. Weiderud (ed.), 21-23 April 2005.

Zivildienst – Ein Zeitzeuge / Service civil – un témoin / Servizio civile – una testimonianza, Bern, Gemeinschaft Schweizerischer Zivildienstleistender (ed.), 2002 (2 nd edition 2006).

Reports, pastoral reflections and WCC declarations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 August 2008 – A/HRC/ 9/24.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alytica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best practices in rela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7 February 2006 - E/CN.4/2006/51.

European Churche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 Contribution to the Conciliar Process for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Bremen, Evangelische Arbeitsgemeinschaft zur Betreuung der Kriegsdienstverweigerer (EAK, ed.), 1991.

Military Recruitment and Conscientious Objection: A Thematic Global Survey, by D. Brett,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 (ed.), 2005.

Now is the Time. Final Documents & Other Texts. World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Seoul 1990, revised version, Geneva 1990, 29.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Military Service, June 2004, statement of the US Decade to Overcome Violence Committee.

Plenary "Overcoming Violence: Living a Culture of Peace". *Mid-Term of the Decade to Overcome Violence 2001-2010: Churches seeking reconciliation and Peace. Call to recommitment*, September 2005, in: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d.)*, Geneva, WCC Publications, 2007, 237.

Statement on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973, in: *The Churches in International Affairs. Reports 1970-1973*,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4, 136.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Brussels, April 2005.

Web-Links

Auf der Flucht vor Amerika, by A. Heide, in: *Die Zeit*, number 17, 20 April 2006; www.zeit.de/2006/17/US-Deserteure_17, access 16 May 2009.

Militärsteuer-Verweigerung und Kirchen in Deutschland – Kirchliche Reaktionen und Positionen zur Absicht der Militärsteuer-Verweigerung, available on the internet from June onward; links: www.netzwerk-friedenssteuer.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71&Itemid=105; <http://cpti.ws> – here under rubric CPTI Documents.

Orthodox Christian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by J. Forest, 12 September 2008; <http://incommunion.org/articles/essays/orthodox-christians-and-conscientious-objection>, access 22 May 2009.

Schritte auf dem Weg des Friedens. Ein Beitrag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EKD-Texte 48, 1994 (3rd edition 2001), art. 4b; www.ekd.de/EKD-Texte/44654.html, 13 May 2009.

Organizations dealing with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www.afsc.org

Adventist Peace Fellowship: www.adventistpeace.org

Campaig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Kampanja za progovor savjesti u Bosni I Hercegovini): www.prigovorbih.org (under construction as of 19 / 08/09)

Catholic Peace Fellowship: www.catholicpeacefellowship.org

Central Committe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CCCO) www.objector.org

Centre on Conscience and War: www.centeronconscience.org

Church and Peace: www.church-and-peace.org

Courage to Refuse: www.couragetorefuse.org/english/default.asp

Episcopal Peace Fellowship: www.episcopalpeacefellowship.org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EBCO): www.ebco-beoc.eu

Evangelische Arbeitsgemeinschaft zur Betreuung der Kriegsdienstverweigerer (EAK): www.eak-online.d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FOR): www.forusa.org

Forum 18: www.forum18.org

Friends United Meeting (FUM) Peace Connections Page: www.fum.org/about/peacepage.htm

Groupe pour une Suisse sans armée: www.gssa.ch/spip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FOR): www.ifor.org

Joseph Rowntree Charitable Trust: www.jrct.org.uk

Koren Anabaptist Centre (KAC): <http://en.kac.or.kr/home>

Lutheran Peace Fellowship: www.lutheranpeace.net

Mennonite Central Committee: www.mcc.org

Mennonite Church USA Peace & Justice Support Network: peace.mennolink.org

Military Counseling Network (MCN): www.getting-out.de

Orthodox Peace Fellowship: www.incommunion.org

Pax Christi USA: www.paxchristiusa.org

Pax Christi International (PCI): www.paxchristi.com

Presbyterian Peace Fellowship: www.presbypeacefellowship.org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QCEA): www.quaker.org/qcea/index.html

Quaker House in Fayetteville, USA: www.quakerhouse.org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QUNO): www.quno.org

Refuser Solidarity Network: www.refusersolidarity.org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 www.wri-irg.org

War Resisters League: www.warresisters.org

Woma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ww.peacewomen.org

〈토론1〉

병역거부와 인권, 양심의 자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한 요구, 병역거부권

최하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지난 6월 3일에 발간된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수백 명이 개인의 양심 및 사상, 종교의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처한 특수 안보 상황을 근거로 병역거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과,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와 제 20조¹⁾에도 명시되어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해 약 700명 정도가 병역법 제 88조(입영의 기피)에 의거해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다.

국제 여러 인권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양심과 사상,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인권’이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수백 명의 개인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해 감옥으로 가는 일은 국제적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특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이다.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헌법재판소 양심적병역거부사건 법률의견서>²⁾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했으며, ‘병역거부권’은 ‘인권’임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병역거부권’은 보편적으로 인정 받는 ‘인권’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하 자유권규약) 제 18조 상의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8조³⁾에 의해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종교 혹은 기타 요소에 대한 신념이나 신앙을 가질 권리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의 형태로 개인의 신념이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와 제 20조에 각기 명시되어 있다.
2) 국제앰네스티(2010), “헌법재판소 양심적병역거부사건 법률의견서”, 국제앰네스티, http://amnesty.or.kr/campaign_library/4199/
3)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서도 보호되는 권리이다.

1993년, 자유권위원회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 제 22호(자유권규약 제18조)를 채택했다. 동 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점차 많은 국가들이 군복무 수행을 금하는 종교나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제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본 규약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제 18 조에서 파생될 수 있으며,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 논평 제 22호와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최종 견해를 채택하는 절차를 수립한 1991년 이래 다루었던 다수의 사례들 중 거의 대부분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규약 제 18조에 근거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최종견해들에는 당사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법규를 채택하고, 일정 수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이고 불충분한 법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권고가 포함되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내린 4번의 권고, 변하지 않는 한국정부와 대법원의 입장

2004년 자유권위원회가 개인 청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 2006년 최초로 윤여범, 최명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동 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제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을 다루면서, 기존 판례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자유권규약 제 8조)의 관련성을 검토한 끝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제 18조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용인되는 종교나 신념 표현 제한에 대해 검토한 끝에 자유권규약 제 18조 제1항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자유권위원회는 제출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개인 청원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인, ‘대한민국의 특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안보를 위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의 종교나 신앙을 표현할 권리는 법에 의해 부과된 모든 의무를 거부할 권리임을 내포하지는 않으나, 제 18조 제3항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믿음에 반하는 강압적 행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위원회는 또한 관련 국가 관행에 대하여,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규약 당사국들이 점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본 당사국이 청구인의 제 18조 상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었을 경우 국가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10년, 2011년, 2012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제되어 있으므로 이 권리가 강제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 특히 2012년 12월, 동 위원회는 병역거부자 388명의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대규모로 개인청

바깥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원을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과 권고안의 반복에도 2013년 7월,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최모씨에게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안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병역거부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이런 일관적인 태도는 지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나타났다. 9월 27일, 인권이사회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와 자유권규약 제 18조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보호되는 권리임을 또 한 번 밝혔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은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재검토 실시하고 조사할 것이라는 주장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큰 틀에서 한국 정부나 병역거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입장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유엔의 권고안이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도 변함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울산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⁴⁾을 제정한 것처럼, 다른 의견들과 논의들도 진행이 되었다. 한 예로 2004년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체복무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며⁵⁾,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200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애석하게도 2008년 12월 한국 정부는 여론 지지 부족을 이유로 이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병역거부권, 당연히 보장되고 존중 받아야 할 기본권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약 90%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이유로 징총 들기를 거부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를 한 역사는 1939년으로 올라갈 정도로 그 병역거부의 역사가 깊다. 많은 신도들이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도의 한 가족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병역거부는 한국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신도들이 군대 가기 전, 병역을 거부하지만 때로는 군대에서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징총 들기를 거부하거나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

2001년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 오태양씨의 공개적인 병역거부선언 이후,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 즉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평화적인 신념의 일부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재 오태양씨처럼 개인의 양심, 신념, 사상의 이유로 개인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일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세계적으로 병역거부권은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난민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병역거부'가 될 정도이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만이 당연하고 이와 다른 결

4) 장영은, "울산지법 부장판사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제청", 연합뉴스, 2013.09.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6/0200000000AKR20130906079800057.HTML?input=1179m>

5) 형혁규, 김성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제 6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07.29., 더 자세한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www.nars.go.kr)에서 확인.

정을 내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배타적인 입장들이 만연하다.

현재 양심과 사상,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처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보호받는 것인데, 뾰족한 대안도 답도 없이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정부의 일괄적인 태도와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분단의 상황만을 강조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방관적인 모습, 그리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국가의 의무를 지킬 수도 있다고 외치지만 여전히 그 주장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는듯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 받는 개인의 삶과 그들이 침해받을 수 있는 인권상황 하나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깔려있는 군사주의와 문화, 병역의 의무가 신성시 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에 반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고민하게 되고 이를 알렸을 때, 사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차별의 시선은 존재한다. 개인이 내린 병역거부라는 큰 결심으로 수감될 1년 6개월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감옥 안의 인권 상황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분리되는 그 소외감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다. 또한 병역거부자의 가족들마저도 차별적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역거부는 주변으로부터의 차별의 시선을 넘어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겪는 차별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후, 병역거부자들은 5년 동안 국가공인 시험 등을 볼 수 없다. 또한 취업 시에도 '병역 거부'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만 감옥에 수감되고 이후에도 따라붙게 되는 '병역거부자'라는 꼬리표가 주는 어려움은 너무나 크다. 예를 들어, 향토예비군을 거부하는 개인은 그에 따른 금전적인 처벌이 계속 증가해 실제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적 사안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들이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의 청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는 일을 막고, 이후에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해,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통한 대안제시를 시급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대법원의 할 일은, 십 년 넘게 되풀이하고 있는 '국가 안보 상'의 이유와 대중적인 여론 지지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한 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안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바라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앰네스티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혹은 신념에 반한 강제 복무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나 신념 혹은 신앙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을 강제하는 일은 '종교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법적 또는 신체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대체복무수행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다(이 경우 대체복무가 병역보다 기간이나 질적인 면에서 처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입대 전이든 군 복무 중이든 언제든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결코 불이익과 명예훼손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전 시에도 이러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를 즉각 사면하고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에 따른 신념 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수감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히 배상할 것.
- 대체복무가 순수하게 민간 복무의 형태를 띠고, 처벌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를 받는 복무이며, 그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규를 정비할 것.
- 금전적 혹은 기타 혜택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병역거부자들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또한, 고용이나, 경력, 연금에서 군 복무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나 규정이 대체복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에서 더 많은 내용 확인 가능

병역거부와 한국교회

강인철(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군중제도와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의 동시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을 배경으로 군중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가 거의 동시에 등장했던 것이다. 전쟁 직후부터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대적 징병에 의해 ‘60만 대군’이 형성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중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두 현상의 함의는 정반대이다. 우선, 전자가 교회-국가의 ‘적극적 유착’을 상징한다면, 후자는 교회-국가의 ‘결렬한 갈등’을 수반한다. 둘째, 군중제도가 ‘전쟁에 대한 정당화와 긍정적인 접근’을 대표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접근’을 대표한다. 군중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 것인가? 한국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성격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선택이 약 60년 전인 1950년대 초에 내려졌던 것이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 남한에서 양심적 병역/집총거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그리스도교 교회는 재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재림교회)와 여호와의 증인의 둘이었다. 두 교단 모두 규모가 작았으며, 주류 개신교 교단들로부터 이단 혹은 그와 유사한 부정적 낙인에 시달렸다. 반면에 개신교 주류 교단들과 천주교는 압도적으로 군중제도를 선택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접근방식은 대략 세 가지로 나타났다. ① ‘십자군/성전(crusade/holy war)의 입장, ②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의 입장, ③ ‘평화주의’(pacifism)의 입장. 십자군/성전 입장이 가장 ‘호전적인’ 태도라면, 정의로운 전쟁 입장은 ‘중도적인’ 태도에 가깝고, 평화주의 입장은 ‘엄전(厭戰)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행동이다. 반면에 군중제도는 평화주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군중제도를 선택한 주류 교회/교단들은 ‘십자군/성전’ 혹은 ‘정의로운 전쟁’ 입장에 속한다. 주류 교회들은 ‘십자군/성전’ 입장과 ‘정의로운 전쟁’ 입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웠을까?

1950년 9월에 개신교 주류 교단들(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과 천주교는 공동으로 ‘군중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의 노력은 그해 12월에 결실을 거두었고, 1951년 2월에 처음으로 신·구교 성직자 32명이 입대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년 동안의 전쟁 기간 동안 군중장교와 그 보조자들은 군부대, 전투현장, 군병원 등에서 엄청난 개종자와 입교자를 얻었을 것이다. 나아가 김양선 목사 에 의하면 개신교는 포로수용소 선교를 통해 약 16만 4천 명의 포로 가운데 14만 명의 ‘등록자’를 얻었고, 6만 명의 ‘입신자(入信者, 세례교인)’를 얻었다고 한다.¹⁾ 군중제도는 개신교 주류 교단들과 천주교가 초교파적으로 협력하여 국가로부터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자 공동자산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에 군목제도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한국 선교사(宣敎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史實)”이라는, 개신교 교단 연합조직인 한국기독교연합회의 군중제도 평가에는 자부심과 감격의 느낌이 듬뿍 묻어 있다.²⁾ 더구나 정규 장교로 임명된 목사들로 군중단이 구성된 것은 미국의 피선교지 중 한국이 처음이었다고 하니,³⁾ 그 자부심과 감격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식민지시대부터

1)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109쪽.

2) 한국기독교연합회 편, 『한국기독교연감: 1957년판』, 대한기독교서회, 1957, 69쪽.

3) Harry A. Rhodes and A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체질화된 강한 반공주의까지 겹쳐지면서, 군중제도에 참여한 주류 교회들은 당면한 전쟁(한국전쟁)을 ‘반공성전’ 혹은 ‘반공십자군전쟁’으로 간주했다. 중도적인 ‘정의로운 전쟁’(혹은 의전론) 입장을 주장하는 주류 교회 지도자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한국전쟁 시기는 물론이고, 최초의 ‘한국군 국외파병’ 사례였던 베트남전쟁 시기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⁴⁾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사건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은 이 전쟁들이 “더럽고 추악한 전쟁”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하지만, 한국의 주류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이 전쟁들을 “성스럽고 거룩한 전쟁”으로 미화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CO)는 거부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① 군복무를 받아들이지만 무기 사용 분야는 거부하는 ‘전투행위에 대한 거부’(noncombatant CO), ② 군복무를 대신하여 공적·사적 기관에서 대체적 공익복무를 하는 ‘대체적 선택의 거부’(alternativist CO), ③ 대체복무 역시 군대체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군대를 사용하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서, 군복무만이 아니라 일체의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절대적 거부’(absolutist CO)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⁵⁾ 이 기준에 따르면, 재림교회는 첫 번째의 ‘전투행위에 대한 거부’(혹은 양심적 집총거부)에 해당되고, 여호와의 증인 교단은 ‘대체적 선택의 거부’ 혹은 ‘절대적 거부’에 해당된다. 굳이 따지자면, 여호와의 증인 교단의 선택은 ‘대체적 선택의 거부’보다는 ‘절대적 거부’ 쪽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남한에서 최초의 집총거부자는 춘천 출신의 재림교회 신자였던 박재식이었다. 그는 1952년 4월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집총거부를 함으로써 심한 구타를 당하여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종전(終戰) 직전인 1953년에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박종일은 병역거부를 선언한 후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종일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된다. 1955년 7월에는 예비군 병무소집 대상이었던 재림교회 신자인 김응호, 박해중, 김창호 등 3명이 집총거부로 3년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 사람은 예비군 중에 그리고 재림교회 신자 중에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이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두 교단에서 감옥행을 선택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결국 한국전쟁 시기이던 1950년대 초에 전쟁·군대·병역·평화에 한국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선택이 확연하게 갈라졌다. 그러나 중도적인 ‘정의로운 전쟁’ 입장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성전/십자군’과 ‘평화주의’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입장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현대 그리스도교사의 크나큰 불행이었다. 이런 상황은 가톨릭교회와 주류 개신교 교단들이 이미 수세기 이전부터 ‘정의로운 전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방해왔던 상황과 배치될 뿐 아니라, 동시대 세계 그리스도교의 흐름과도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기도 했다.

‘정의로운 전쟁’ 입장을 고수해온 서구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성전/십자군’ 입장이 기승을 부렸다. 원래부터 정의로운 전쟁 교리에는 전쟁에 대한 ‘정당화 기능’과 전쟁에 대한 ‘제한(탈정당화) 기능’이 모두 내장되어 있었다. 이런 이중성 중에서 ‘전쟁 억제 기능’이 극대화될 경우 정의로운 전쟁론은 평화주의와 비슷해지지만, 반면에 전쟁 정당화 기능이 극대화될 경우 정의로운 전쟁론은 성전/십자군전쟁론과 거의 다를 바 없어지게 된다. 이런 끔찍한 가능성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1차 대전을 겪은 이후 교회 안에서 ‘성전/십자군’ 논리가 결정적으로 후퇴했던 데 반해 ‘평화주의’ 입장은 확산됨으로써, 1920년대부터 그리스도교

U.S.A.: 1935-1959, New York: 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5, p. 345.

4)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규모는 4.8~5만 명가량이었다. 연인원으로는 모두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다.

5)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안경환장복희 편,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15-16쪽.

의 전쟁 관련 접근방식은 ‘평화주의’와 ‘정의로운 전쟁’의 두 가지로 사실상 단순화되었다.⁶⁾

홀로코스트, 무차별 공중폭격, 핵무기까지 등장한 거대한 세계전쟁(2차 세계대전)을 또다시 겪은 후 주류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정의로운 전쟁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의 추세는 정의로운 전쟁 교리의 ‘정당화 기능’을 한껏 축소시키면서 ‘제한 기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류 그리스도교 내에서 평화주의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2차 대전 이후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의 입장과 평화주의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공존해왔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쟁 교리의 내부로 평화주의의 요소들이 상당히 침투해 들어왔다. 말하자면, 20세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정의로운 전쟁(의전론) 교리의 평화주의적 전환 내지 재해석’, 그에 따른 ‘의전론과 평화주의의 수렴’이 두드러지게 되었다.⁷⁾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 그리스도교에서는 주류 교회들의 ‘성전’ 입장과 비주류 교회들의 ‘평화주의’ 입장이 서로 최대한의 종교적/정치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적대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상당한 공통분모로 인해 상호적인 이해와 수렴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의전론-평화주의’의 경쟁 구도가 1950년대 이후의 세계 그리스도교를 지배했다면, 당시 한국에서는 훨씬 이질적인 ‘성전-평화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상호이해와 수렴은커녕 대립과 무시가 지배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다. 말하자면, ‘의전론 대(對) 평화주의 사이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세계 그리스도교) 그리고 “성전 대 평화주의 사이의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상호작용”(한국 그리스도교)의 선명한 대조 내지 괴리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셈이다.

주류 교단들에 의한 몰이해와 편견, 심지어 “이단이니 당해도 싸다”는 식의 적대감 속에서, 나아가 언론의 보도도 혹은 비판적 보도로 대표되는 사회의 무관심, 국가에 의한 강경일변도의 탄압이 겹쳐지면서, 평화주의 입장에 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말 못할 고통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종교적·사회적 시민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개신교 교단들의 문제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아예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도 못했다. 종종 이단 시비의 대상이 되는 소수 교단에 속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류 그리스도교에 의해서나 국가에 의해서나 사회적 투명인간이거나 사회적 존재감 자체가 없는 사람들 취급을 당했다.⁸⁾

앞서 보았듯이, 재림교회 신자들은 ‘양심적 집총거부’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아왔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1950년대 이후 최근까지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비해 더욱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할 경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에 해당되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1994~2001년) 혹은 2년 6개월(2001년 이후)을 선고받는다. 이에 비해 입영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징역 1년 6개월 내지 2년을 선고받는다. 거부의 정도 면에서는 ‘병역거부’가 ‘집총거부’를 능가하지만, 처벌의 정도 면에서는 항명죄(집총거부자)가 입영기피죄(병역거부자)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모두 1만 2,32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2만 5,483년, 월로 환산하면 20만 5,801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⁹⁾ 2005년부터 2010년 7월 말까지 5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만도 징역형을 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병역거부자 숫자가 3,674명이나 되었다.¹⁰⁾ 1950년 이후 2011년 11월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6) 강인철, 『전쟁과 종교』, 한신대학교출판부, 2003, 237-242쪽.

7) 위의 책, 242-260쪽.

8)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163쪽.

9) 신윤동욱, “양심적 병역거부 1만 2324명 2만 5483년”, 『한겨레21』, 2007.3.20, 70쪽.

10) 한겨레, 2011.5.9.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교단 신자들만 해도 무려 1만 6,225명에 이르렀다.¹¹⁾ <표 1>에서 보듯이, 2000년까지는 약 45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량이 더욱 증가되었다.

<표 1> 여호와의 증인 교단 소속 병역거부자에 대한 시대별 평균 형량

시기	거부 건수	형량 총합 (개월)	형량 평균 (개월)	시기별 주요 특징
1953~1954	3	36	36.0*	한국전쟁
1955~1972	654	6,744	10.3	민간재판
1973~1979	1,026	24,139	23.5	유신헌정권, 특별조치법, 강제징집 시작
1980~1993	2,864	67,142	23.4	군사재판
1994~2000	3,961	138,539	35.0	법정 최고형인 3년 선고, 군사재판
2001~2006	3,483	68,959	19.8	민간재판 1.5년 선고, 강제징집 종결
무응답	657	242	0.3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체포되어 병역거부 입장을 밝힌 두 건은 계산에서 제외함.

** 출처: 신윤동욱, “양심적 병역거부 1만 2324명 2만 5483년”, 『한겨레21』, 2007.3.20, 72쪽.

1968년과 1970년에는 각각 예비군제도와 학생군사훈련제도가 부활되었다. 이는 징총 혹은 병역 거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교단에게는 군대에서의 고통이 이제 ‘군복무 이전’ 단계(학교)뿐 아니라 ‘군복무 이후’ 단계(직장·거주지)까지 대폭 확대됨을 의미한다. 양심적 징총·병역 거부로 인한 국가권력과의 충돌, 그로 인한 희생자들이 10대~30대 연령층 남성 신자들 전체로까지 빠르게 번지는 사태 앞에서, 관련 교단들이 압도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평화주의적 신념을 고수하기란 더욱 힘겨운 일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림교회 신자들 가운데 양심적 징총거부 행위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감소했고, 1970년대 중반경에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교단 차원에서도 양심적 징총거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포기되었다. 국가권력의 위압이 특정 종교단체의 핵심적 교리와 신조의 변경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평화주의의 양대 축 중 하나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재림교회의 양심적 징총거부 교리 포기는 교단분열로까지 이어졌다. ‘재림교회 개혁운동파’라는 작은 집단이 갈라져나와 양심적 징총거부 교리를 이어갔던 것이다. 재림교회에서 1955년부터 1976년까지 97명의 징총거부자가 나왔지만, ‘재림교회 개혁운동파’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징총거부자들이 출현했다.¹²⁾

재림교회의 징총거부 입장을 꺾는 데 성공한 국가는 1974년부터는 입영 자체를 거부해오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해 ‘강제입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강제입영 조치에 의해 군대로 끌려와서도 병역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는 신체적 가혹행위가 극성을 부렸다. 1975~1981년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 신자 4명이 군대 측의 가혹행위와 고문, 구타로 사망했고, 1985년에도 한 명이 훈련소에서 겪은 폭행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강제입영 이전인) 1974년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실형(병역법 위반)을 선고받아 현역병 군복무를 면제받다가, 1974~1994년 사이 20년 동안에는 최장(最長) 7년 10개월에 이르는 ‘중복·가중 처벌’(군형법 위반)에 시달렸다. 강제입영이 시작된 1974년부터 이 교단 신자들은 병역법(병역기피죄)이 아닌 군형법(항명죄)에 따라 처벌받았다. 그에 따라 민간재판정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형량도 크게 증가되었다. 항명죄의 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된 후 거의 일률적으로 3년형을 선고하던 1994~2001년 사이에는 대부분 3년의 실형(군형법 위반)을 선고받는 대신 ‘중복·가중 처벌’의 마수에서 비로소 벗어났고, 2001년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병역법 위반)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¹³⁾

11) 한겨레, 2011.11.26.

12)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 190-198쪽.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몇 가지 특징을 드러냈다. 첫째, 전쟁을 거치면서 징병제·학생군사훈련·예비군제도 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양심적 병역/집총거부로 인한 종교-국가 갈등의 범위가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으로까지 최대한 확대됨과 동시에, 양심적 병역/집총 거부자들이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개인 생애 중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국가폭력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¹⁴⁾ 둘째, 50년 이상 전적으로 종교인들에 의해서만 제기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문제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국가의 탄압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960대 초부터 가해진 ‘중복처벌’과 ‘가중처벌’,¹⁵⁾ 특사나 가석방 등의 감형 혜택 축소, 감옥 안에서의 종교자유 침해, 1974~2001년까지 계속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한 강제입영 조치 등이 그 증거들일 것이다. 국가의 강도 높은 탄압과 처벌 일변도 정책은 초법적인 강제입영 조치를 통해 해당 신자들의 교리적 입장에도 맞지 않는 ‘선(先) 입영 후(後) 집총거부’라는 대응을 강제하거나(여호와의 증인), 교단의 핵심 교리를 수정하게 만들거나(재림교회), 교단 내부의 혼란과 균열을 초래하는(재림교회) 등의 파괴적이고 파국적인 결과들을 빚어냈다.¹⁶⁾

이 정도 되면 “종교 대박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단일 사안으로 이토록 많은 이들을, 이토록 오랫동안,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문화적 폭력까지 전방위적으로 괴롭혔던 일이 가하면서.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세계 수인의 90% 이상이 한국의 여러 감옥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특정 종교인들의 신앙고백적 결단에 대해 가혹한 처벌만을 고집함으로써 국가가 배교(즉 교리에 대한 불충)와 이단(즉 정통교리의 수정)을 강요하는 이 현대의 야만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¹⁷⁾

재림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세계 그리스도교의 흐름과 동떨어진, “성전 대 평화주의 사이의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이라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불행한 경쟁 구도는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평화운동의 역사적 지체’ 현상에도 일조했다. 한국은 강력한 민주화운동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 운동은 ‘평화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있었다. 1970년대 초 대학생들의 ‘교련반대운동’, 197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들의 ‘학도호국단 폐지운동’, 1980년대 초 대학생들의 ‘병영집체훈련 반대운동과’ 전방입소훈련 반대운동’도 ‘군사독재에 대한 항거’이나 ‘학원민주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지, 평화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구 사회들에서는 ‘종교적 평화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좌파 평화주의자들’이 평화운동의 양대 세력을 형성했지만,¹⁸⁾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운동의 맥은 이미 끊겼고, 주류 종교에서 평화주의자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힘 있는 주류 교회들은 오히려 호전적인 성전 논리를 선호하고, 평화주의 교회들은 ‘사회적 영향력’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성전-평화주의의 불행한 대립구도’는 적어도 1990년대 이후에는 확연히 달라졌다. 1970~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그리스도교 진보세력은 1990년대 들어 대부분 ‘정의로운 전쟁’ 입장으로 결집

13) 위의 책, 186-189쪽.

14) 학생군사훈련(교련)은 1989년에 대학에서, 1994년에 고등학교에서 각각 폐지되었다.

15) 1960년대 초부터 ‘중복처벌’ 및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첫 번째 집총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다시 훈련소로 보내져 두 번째 집총거부에 이은 두 번째 재판에서 (동일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첫 번째 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복역 후 곧바로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최소 형량은 2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대폭(대체로 ‘3년 이상의 실형’으로) 늘어났다.

16)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 200-201쪽.

17) 강인철,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한신대학교출판부, 2012, 593쪽.

18) 박노자,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한겨레출판사, 2012, 288-300쪽.

한 것으로 보인다. 주류 개신교의 경우, 다수세력인 보수파들은 여전히 성전/십자군 입장에 머물러 있지만, 소수세력인 진보파들은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사상』과 『신학사상』 등을 통해 새로운 전쟁 교리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다. 천주교의 경우에도,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한 부정을 시사한 『지상의 평화』(1963년)를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을 촉구한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1965년), 『민족들의 발전』(1967), 『세계 정의』(1971) 등의 문헌들이 발표 직후 한국어로 속속 번역되면서, 공식교리로부터의 오랜 일탈에서 정상화되는 과정, 다시 말해 성전/십자군 입장에서 벗어나 ‘정통적인’ 정의로운 전쟁 교리로의 복귀 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92년 10월에 처음 반포되고 1997년 8월에 수정판이 발표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정의로운 전쟁 입장과 대체복무제 허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1991년 발발한 걸프전으로 인해 베트남전 파병 이후 거의 20년만에 한국군의 해외파병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진보적 그리스도교 쪽에서 나온 담론들은 대부분 ‘정의로운 전쟁’(그것도 ‘평화주의적으로 전환된 정의로운 전쟁 교리’) 입장에 가까웠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문제가 공론화된 2001년 이후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에서 평화주의 세력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 그리스도교의 상황도 이제는 “정의로운 전쟁 대 평화주의 사이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뀐 것이다.

전쟁 교리의 진보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로 가면 상황은 여전히 복잡 미묘하다. 천주교의 경우, 2005년 12월 5일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가톨릭교회 교리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징병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금년 3월 완고한 보수파인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진보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장한 이후 한국 천주교 상층부의 한결 달라진 분위기는 “정통교리(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오랜 불충(不忠)과 편익적인 태만”이 조만간 끝나리라는 기대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개신교 쪽은 상황이 더욱 좋지 못하다. 한국 개신교의 절대다수 세력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 대표되는 개신교 보수 세력은 여전히 성전/십자군 입장에 가까우며, 그들이 정의로운 전쟁을 말할 때조차도 ‘전쟁 억제 기능’보다는 ‘전쟁 정당화 기능’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대체복무제 허용에 보다 가까운 듯하지만, 보다 구속력 있고 공식성이 높은 입장 표명을 하기에는 내부의 보수 세력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주류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는 ‘이단-정통의 도식’이 아닌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2005년 성명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국가안보이데올로기/반공주의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분단체제의 이완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결정적인 장애이자 조건인 남북 대결상태의 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던 2007년 9월 18일이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3일)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2008년 7월 4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의 재검토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직후인 그해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직후부터 금강산관광 전면 중단 등 남북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해 12월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론3〉

병역거부와 나

- 그리스도교 병역거부자가 된 “홍이”의 이야기

홍원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011년 8월 병역거부 선언)

나는 모태신앙으로 가톨릭의 세례를 받고 30년 쯤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청소년사목을 동반하는 활동들을 했었다. 활동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을 기억한다.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면서 친구들 저마다 다양한 트라우마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의 트라우마에서 내 안의 트라우마들을 직면할 수 있었다. 오래 전 아버지로 인해 내게 소중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어린 시절 또래들로부터 겪었던 폭력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이 띄었던 시간들로 기억한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살아 오면서 수도공동체들의 전통을 발견했다.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힘들게만 느꼈던 시간 속에서도 화해와 신뢰라는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공동체들에 입회 해서 수도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꿈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군 입대에 대한 고민을 처음 시작했다. 한 때는 군중병 지원 등을 고민하기도 했었다. 모집 안내 사이트를 찾다가 군중 설치의 목적 등을 풀어 쓴 문구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신앙을 통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식의 내용들이 있었다. 그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들과 동반하면서 친구들과 나눴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스스로 택한 삶의 가치들은 무엇이었나 라는 답답함 뿐이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군인이 된다는 것이 지극히 모순적으로 느껴지면서 너무나 안이했음을 깨달았다.

청소년 사목의 동반자로 활동하던 2005년 처음으로 가톨릭 신자인 병역거부자가 나타났다. 이 때 교회 안에서 지지 기자회견과 신학생들의 인식들을 묻는 설문조사 등이 시행되었다. 가톨릭 교회에는 공식 교리로서 대체복무와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사회교리의 가르침들이 조금씩 소개 되면서 병역거부를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난 계기들이기도 하다. 분명 그리스도교는 평화라는 가치에 기반한다. 전쟁을 평화의 실패로 규정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한다고 할 것이다. 군 복무가 의무라 할지라도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인간 공동체를 위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할 것을 역설 해왔다. 더 나아가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 질서나 인간의 기본권, 복음의 가르침 등에 위배될 때 이에 따르지 않을 의무까지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들이 쌓여 갔다.

그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병역을 거부했던 이들이 여럿 있었다. 그 때마다 기자회견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내 사그라들었고 교회 내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단지 침묵임을 아프게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어졌다. 병역거부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라던 어느 병역거부자의 말이 떠오른다. 많은 이들이

병역거부자들의 존재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내가 신앙과 교리를 이야기 할 때에 돌아온 불편한 시선들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렇기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병역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야기를 나눠왔던 많은 이들은 자신이 다녀왔던 군대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데 그쳤다. 남들 다 가는 군대라는 인식의 벽은 참으로 높고 단단했다. 교리서들의 원칙적인 입장들마저 이단으로 여기는 불편한 말들도 많았다. 군대와 병역이란 문제는 정치적 영역일뿐 신앙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 중에 자신이 왜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봤을 이들이 얼마나 될까 문득 궁금해졌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통과의례처럼 아무런 고민 없이 군대에 보내왔다. 신학생들 마저 사제서품을 받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성직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신학교에 다니다가도 병역을 거부하면서 꿈을 접어야 했던 이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당연한 듯 군에 다녀온 사람들이 대다수인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긴 채 군대에 다녀오는 것만이 정상성의 범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성찰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교에서 그토록 열심히 서로 사랑할 것과 평화를 이루라는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 가르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과연 많은 경우에 군대는 복음의 가치에 따라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안전한 삶을 이루는 도구로써 쓰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신성한 의미나 정당한 논리를 갖다 붙인다 한들 명령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 군대의 본질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때문에 교회가 먼저 국가에게 책무를 다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도대체 예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 머튼의 평화론, 토마스 머튼

〈Memo〉